

遺墨

七月廿一日忽奉

佳章施之萬知

超然物外有其出語洒然非

也驪工長好亦亦

先生所知不

先生先君着鞭也

間新歲與日不同吳近聞若竺戶廟

令官門欲與陶隱正馬注早果得如列

當作一夜話也歲受新米之

惠敢不感感僕自六月患痢疾將三日矣

翁幸并

夏及在途收時秋涼

# 정몽주 鄭夢周

光緒庚辰秋八月下澣  
題于員船館 英植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 1337(충숙왕 6년) - 1392(공양왕 4년)
- 고려말 문신, 학자, 외교가
- 경학·역학·시문에 능통
- 동방성리학의 시조, 충절의 표상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주요저자: 홍순석 · 김성환

홍순석: 용인출생, 문학박사. 강남대 교수, 인문과학연구소장  
(주요저서)

김세필의 생애와 시, 박은의 생애와 시, 김억한시역선, 안재 성입의 시와 삶,  
국역 형제 이직선생문집, 성현문학연구, 양사언의 생애와 시, 양사언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인명자호사전(공편)

김성환: 서울출생, 문학박사.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주요저서)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한국역대문집총서목록 / 색인(I · II · III),  
내고장 용인 지명 · 지지(공저), 내고장 용인 금석문총람(공역)

遺墨

七月廿一日忽奉

佳章施之再三乃知

超然於物不主其出語亦泯洒然非

也驪江長所居也亦

先生所知

先生之老翁者鞭望不愧為老翁也

間新事歲月不同吳近聞若庶房廟幸

令官門欲與陶隱正馬往早果得如野川寧

當作一夜話也歲受新米之

惠敢不能感偉自六月患痲疾將卒矣比米亦

卷幸并

光緒庚辰秋八月下澣  
題于真船館 吳推

# 정몽주 鄭夢周



포은 정몽주의 생애 · 3

포은 정몽주의 사상과 학문 · 35

포은 정몽주의 유적 · 57

포은 정몽주의 연보 · 87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포은 정몽주의 생애



고려 말~조선 초기는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기이다. 이 시기는 사대부들이 이제까지 불교를 중심으로 해오던 시속(時俗)을 유학(儒學)으로 바꾸어 새로운 이상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던 때이다. 이 시기의 사대부들은 당시의 사회변동을 어떻게 인식하며,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에 따라 고려왕조의 수성(守成)과 신왕조 개창(開倉)이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갈라졌다. 수성파와 창업파의 중심에는 이색(李穡)과 정도전(鄭道傳)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이 목도하고 있던 고려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은 대체로 같았다. 그런데도 입장을 달리하게 된 것은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성리학을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수성파는 유불동도론(儒佛同道論)·일전일주론(一田一主論) 등 고려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반면 창업파는 척불론(斥佛論)·사전개혁론(私田改革論) 등 전면적이면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신왕조를 개창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포은은 이들 중 수성파에 가까웠지만, 양 세력 중 어느 한쪽과도

완전하게 결합하지 못하였다. 그가 어느 방향에서 고려사회의 개혁을 이끌고자 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창업파의 신왕조 개창에 극력 반대하며, 고려 사직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위화도회군 이후 포은은 이전까지 뜻을 함께 하며 고려사회의 개혁을 주도했던 이색·이승인 등 수성파와 결별하고, 이성계·정도전 등 창업파와 결탁하여 공양왕을 추대하였다. 이것은 우왕·창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포은의 현실 인식이 수성파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포은은 창업파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들과 대립하며 마지막까지 고려 왕조의 충신이기를 자처하였다. 훗날 포은의 이 같은 순절은 조선조 사람들의 숭모의 대상이 되었고,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상 정치를 도모하였던 사림(士林)에 의해 마침내 이학(理學)의 조종(祖宗)으로까지 추앙되었다.

그동안 포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고려 말엽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사대부의 주도 아래 진행된 각종 개혁정치 및 그들의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고려 말 사대부 계층의 수성파 창업이라는 입장의 중심에 있던 이색과 정도전과 관련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반면, 고려 사직에 대해서는 수성의 입장이었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창업의 입장에 있었던 포은과 관련한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sup>1)</sup>

이 글에서는 고려 말엽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려왕조의 존속을 위해 절치부심 했던 포은의 전반적인 생애를 몇 시기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에서 그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과도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고, 사직의 보존에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 왕조와 함께 일생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루어진 포은의 순절이 시사하는 역사적 의미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sup>2)</sup>

1) 이런 점에서 유경아의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1996, 이화여대)는 주목을 끈다. 그는 포은집에 전하는 시문을 적극 활용하고, 『고려사』 등의 자료를 섭렵하면서 정몽주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에서의 평가 역시 살피고 있다. 이밖에 역사학 분야에서의 정몽주에 대한 연구로는 이형우(1990), 『정몽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고찰 -공양왕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1, 한국사학회; 신천식(1998), 『정몽주의 학문과 교육사상』, 『고려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사상』, 명지대출판부 등이 있다.

2) 포은의 생애에 대한 『고려사』와 『포은집』, 『연보고이(年譜考異)』의 기록에서 관직의 제수 시기 등이 차이가 더러 있는데, 여기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따랐음을 밝힌다.

## 1. 가계(家系)

### 쟁신(諍臣)의 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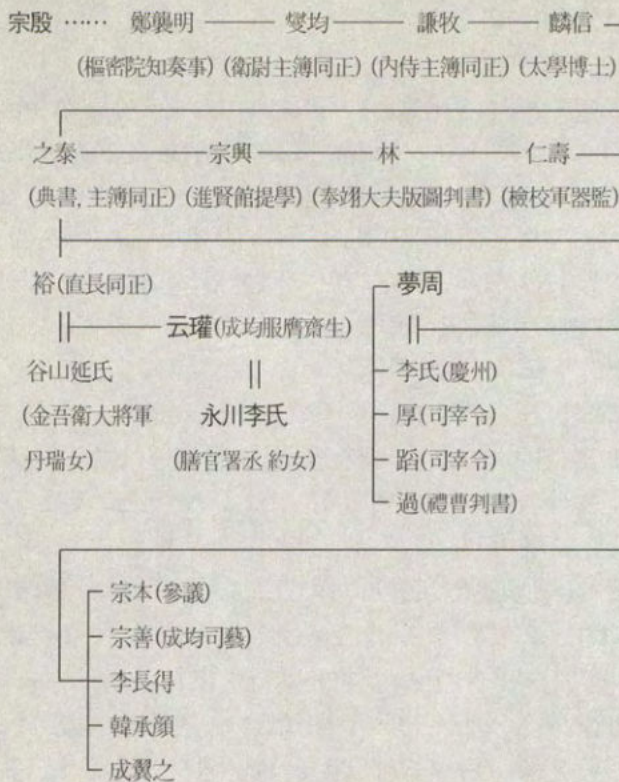
포은은 고려 예종(睿宗) 때 향공(鄉貢)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의종(毅宗) 때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낸 습명(襲明)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정습명은 쟁신(諍臣)의 풍도가 있어 인종(仁宗)이 중히 여겼고, 의종에게는 그에게 의지할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의종은 잘못된 일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그를 경계하였다. 그가 이로 말미암아 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후회하였다고 한다.<sup>3)</sup>

포은의 가문은 지방에서 거주하던 재지사족(在地士族)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습명 이전의 영일정씨(迎日鄭氏) 인물 가운데 『고려사』 등의 자료에서 뚜렷한 행적을 남기고 있는 인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조부 유(裕)가 직장동정(直長同正)을, 부친 운관(云鑑)이 성균관 복응제생(服膺齋生)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치는 고려말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포은의 가계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영일정씨의 시조는 신라 때 간관(諫官)을 지낸 종은(宗殷)으로 전한다. 정씨가 경주에 속해 있던 영일로 관적을 삼게 된 것은 종은이 언사(言事)로 폄출되어 후손 의경(宜卿)이 영일지역의 호장(戶長)으로 정착하면서 비롯한다.

<표1>의 포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정습명 이후 정몽주 이전의 인물중 섭균(變均)·겸목(謙牧)·지태(之泰)·봉익대부 개성윤 상호군으로 증직된 인수(仁壽)·봉익대부 밀직부사 상호군으로 증직된 유(裕) 등은 동정(同正) 또는 검교(檢校)를 역임하였다. 인신(麟信)·종흥(宗興)·임(林)은 태학박사(太學博士)·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봉익대부판도판서(版圖判書) 등을 역임했다.

3) 『고려사』 권98, 열전 11, 정습명 참조.

〈표1〉 포은 정몽주 선생의 가계<sup>4)</sup>

지태(之泰)의 경우 전서(典書)를 역임했다고 하지만, 현손인 광후(光厚)의 장적(帳籍)에는 주부동정(主簿同正)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sup>5)</sup> 이들이 실직을 역임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단지, 일성부원군(日成府院君)에 추증된 운관(云瓘)만 성균관의 복음재생(服膺齋生)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포은의 가문이 귀족가문이거나 고려 후기 권문세족과 연결지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당시 사대부의 출신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포은의 활동 기반은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이다.

4) 가계도는 『고려사』 권 98 및 117의 정습명·정몽주 열전과 함부림(咸傅霖)이 지은 『행장(行狀)』(『포은집』 권 3, 부록), 『영일정씨세보(迎日鄭氏世譜)』·『영일정씨포천공파세보(迎日鄭氏抱川公派世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5) 『영일정씨포천공파세보』 참조.

## 2. 출 생

포은은 고려 충숙왕 6년(1337) 12월 22일에 부친 운관(云灌)과 모친 영천이씨(永川李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모친은 선관서승(膳官署丞)을 지낸 약(約)의 따님으로 후일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으로 증직되었다. 포은이 탄생한 곳이 경북 영천군 동우항리로 기록된 문헌도 있으나, 『연일정씨사적집』에 의하면, 동우항리는 출생지가 아니고 성장지이다. 고려시대 문인인 함부림(咸傅霖)이 지은 글에 “정몽주는 경주부 영일현 사람인데 영천에 옮겨 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영일군 문충리 182번지에는 포은이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했다는 승마석(乘馬石)이 있으며, 그 주위에서는 토기와 자기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포은이 영일군 운제산(雲梯山) 아래 마을인 문충골(文忠谷)에서 출생하고, 이후 영천으로 옮겨 살았음이 분명하다.

오천읍(烏川邑) 구정리(舊政里)도 포은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인데, 옛날에는 ‘구정승골’이라고 하였다. 현재 포은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이 비는 조선 인조12년(1634)에 건립한 이해 1987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日城府院君 墓所



비의 규모는 152×50×21cm이다. 비각은 정면 측면 1칸으로 옥개 석은 얇은 맞배지붕의 형태이다.

### 모친의 태몽으로 이름을 짓다

포은의 처음 이름은 몽란(夢蘭)이다. 어머니 영천이씨가 임신하였을 때 난초 화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고 놀라 깨서 낳았기 때문에 몽란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포은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상하지 않았다. 어깨에 검은 점 7개가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있어 훗날 크게 된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9세 되던 해에 영천이씨가 낮잠을 자다가 검은 용이 뜰 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기어오르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보니, 포은이 배나무를 기어오르며 놀고 있었다해서 이름을 다시 몽룡(夢龍)이라 고쳤다. 널리 알려진 이름 몽주(夢周)는 그가 관례를 행하고 나서 바꾼 이름이다.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다. 자(字)는 달가(達可)이고, 호는 포은(圃隱)이다.<sup>6)</sup>

### 효자리 유허비

포은은 고려 공민왕 4년(1355)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였으며, 그후 10년 뒤엔 모친상을 당하여 역시 3년간 시묘하였다. 이러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공양왕 원년(1389)에 그가 사는 우항리를 '효자리(孝子里)'라 명하고, 영천군수 정유(鄭有)로 하여금 비석을 세워 기념하게 하였다. 이 비석은 한 때 소실되었다가 조선 성종 18년(1487) 경상감사 손순효(孫舜孝)의 현몽에 의하여 매몰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다시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였다. '효자리유허비'는 현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703번지에 있으며, 경북

6) 『포은집』 권3, 부록, 「행장」 참조.

孝子里遺墟碑閣



유형문화재 제 272호로 지정되었다. 규모는 170×63×21cm이며, 중앙에「孝子里」라 새기고, 우측에「功臣贊成事大提學鄭夢周」, 좌측에「洪武己巳三月석영수정유입비」라 새겼다. 비각 안에는 손순효가 지은 글과 후손 정거(鄭瑠)가 1564년에 지은 「효자비각영발(孝子碑閣詠跋)」현판이 걸려 있다.

### 3. 생애

포은의 생애는 고려 말엽 그가 역임했던 관직을 중심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성균관에서의 활동기(공민왕대)·외교관으로서의 활동기(우·창왕대)·이성계와의 반목기(공양왕대)가 그것이다. 특히, 공양왕 때는 동지인 이색을 중심으로 하는 수성파와 결별하면서 고려 사직의 보존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시기이다.

## 1) 성균관(成均館)에서의 활동

## 과거급제

포은은 부친상을 마치고, 1357년(공민왕 6) 어사대부(御史大夫) 신군평(申君平)이 주관한 국자감시(國子監試)에서 제 3명으로 급제하였다. 그리고 1360년(공민왕 9)에는 지공거 정당문학(政堂文學) 김득배(金得培)와 동지공거 추밀원학사(樞密院學士) 한방신(韓方信)이 주관했던 과거에서 3장(三場)을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모두 33명이 급제하였다.<sup>7)</sup>

임박(林樸)·백군영(白君瑛)·신인보(申仁甫)·김주(金湊;金車奏)·김질(金質)·문익점(文益漸)·박계양(朴啓陽;朴惇之)·이준(李立尊)·김군정(金君鼎)·송윤경(宋允卿)·이인민(李仁敏)·이자용(李子庸)·김린(金潏;金麟)·정천린(鄭天麟)·허진(許璉)·김희(金禧)·이존오(李存吾)·서균형(徐鈞衡;徐均衡)·유원(柳源)·이인범(李仁範)·윤덕린(尹德隣)·김승원(金承遠)·곽추(郭樞)·이사위(李士渭)·김경생(金慶生)·김석해(金石諧)·황원철(黃元哲)·이을년(李乙年)·유구(柳珣)·이양(李陽) 등이 그와 동년(同年)이다.<sup>8)</sup>

포은은 과거의 3장에서 연이어 장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로서의 출발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먼저 과거에 급제한 이듬해인 1361년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福州; 安東)로 남천(南遷)하는 국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려사』 『열전』과 『포은집』 『연보고이(年譜攷異)』 등에는 그가 처음 관직을 보임 받은 시기를 1362년 3월 예문검열(藝文檢閱)로 기록하고 있다. 이민족의 침구로 왕이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려 조정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과거 등제 직후 관직을 제수하지 못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 포은은 과거 급제와 동시에 관직을 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민왕이 복주로 파천하였을 당시 그가 시종신

7) 『고려사』 권73, 지27, 선거 1, 과목 1, 선장, 공민왕 9년 참조.

8) 박용운(1990), 『고려시대 을서제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481~489쪽. 유경아(1996), 『정몽주의 정치적 성장과 사상』,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0쪽.

(侍從臣)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안동서기로 부임하는 이수재를 전 송하면서(送李秀才就赴安東書記)>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9)</sup>

물론 과거에 장원한 예비 관료의 성격으로 공민왕을 호종했을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급제와 동시에 초직(初職)을 제수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sup>10)</sup>

### 의리에 따른 좌주 김득배(金得培)의 장례

홍건적의 침구가 끝나자마자 포은의 좌주(座主)로 절대적 후원자였던 김득배(金得培)가 친원 세력과 결탁하여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하였다는 김용(金鏞)의 무고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포은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그의 관직생활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좌주→문생(門生)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통한 관료로서의 진출과 정치 진로의 모색은 출발부터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득배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함으로써 역적 김득배와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의리를 보여 주었다.

“오호라! 황천(皇天)이여! 이 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인가. 대개 듣건대 선한 것에 복을 주고, 간사한 것에 재난을 내리는 것이 하늘이요,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주는 것이 사람이라 하니, 하늘과 사람이 비록 다르다고 하나 그 이치는 한가지이로다. … 지난날 홍건적이 난입하였을 때 승여(乘輿)가 파천(播遷)하여 나라의 운명이 실에 매달리듯 위태로웠으나, 오직 포은만이 대의(大義)를 수창(首倡)함에 원근에서 향응(響應)하였네. 자신이 만사의 계책을 내어 능히 삼한의 왕업을 회복시키니 지금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는 것이 누구의 공이겠는가.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으로 덮어주어야 하고, 죄가 공보다 무겁다면 반드시 그 죄를 귀복(歸服)하게 한 연후에야 다스림이 옳거늘 어찌 한마(汗馬)가 마르지 않고 개가(凱歌)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내 태산 같은 공을 옮겨 봉린(鋒刃)의

9) 『포은집』 권2, 「送李秀才就赴安東書記(五絶)」, “(一) 先王昔日忽南巡 也 亦行宮侍從臣 去歲映湖樓下過 仰瞻宸翰涕沾巾”.

10) 신천식(1998), 『정몽주의 학문과 교육사상』,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사상』, 명지대 출판부, 175쪽.

피가 되게 하였나! 이것이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에게 묻는 까닭이로다. 내가 그 충혼(忠魂)과 장백(壯魄)이 반드시 천추만세하도록 구천의 바닥에서 음혈(飲血)할 것을 알겠노라. 오호라! 목숨이여!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포은집 권 3, 잡저, 제김득배문)

포은은 죄주 김득배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은 하늘의 올바른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세운 공으로 덮어주어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김득배의 시신을 거둔 것은 천추만세하도록 구천의 바닥에서 음혈할 충혼과 장백을 위한 것이었다.<sup>11)</sup> 이 같은 포은의 태도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의리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죄주인 한방신(韓方信) 역시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의 피살에 연루된 아들 한안(韓安)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가 1376년(우왕 2) 죽음을 당한다.<sup>12)</sup>

죄주 2명 모두가 역적 또는 그와 관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포은의 정치적 진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1362년 예문검열을 제수한 이듬해 포은은 두 번째 죄주인 한방신(韓方信)이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로 여진 정벌에 나서자 종사관(從事官)으로 출정하여 여진의 삼선(三善)·삼개(三介)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고려는 충정왕 때부터 계속된 왜구의 침구와 1359년·1361년 2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 등 이민족의 침탈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때 포은은 1364년 화주(和州)에서 병마사(兵馬使)로 함께 참가한 이성계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곤경을 직접 목도하였다. 이 당시의 경험은 후일 성균관 학관(學官)으로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몸담아 활동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

11) 이것은 다음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포은집』 권 2, 「祭金元帥(得培)」 "自是書生合討文 遁何麾羽將三軍 忠魂壯魄今安在 回首靑山空白雲".

12) 『고려사절요』 권 30, 우왕 2년 12월 참조.

으로 생각된다.

여진 정벌 이후에는 수찬(修撰)을 배수하고, 합문지후(閤門祗候)·전농시승(典農寺丞) 등을 역임하였다. 1365년(공민왕 14)에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이 모두 백일이면 길복(吉服)을 입었으나, 포은은 예제(禮制)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부모의 상을 모두 친묘(親墓)하며 예예(哀禮)함이 지극하여 조정에서는 이를 귀감으로 산고자 정려(旌闕)를 하사하였다. 상을 마친 후 선세에게 통직랑(通直郎)과 전공정랑(典工正郎)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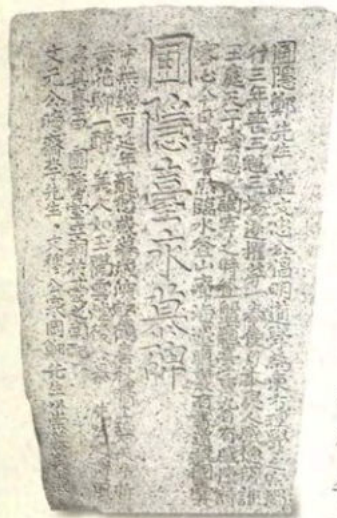
#### 성균관 학관(學官)으로의 개혁 활동

이 무렵 공민왕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고려사회의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균관을 중수하고 이색을 겸대사성(兼大司成)에 임명하는 한편, 경학(經學)에 뛰어난 사대부를 등용하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포은 역시 1367년(공민왕 16) 예조정랑으로 성균박사를 겸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에는 봉선대부(奉善大夫) 성균사에(成均司藝)에 올랐고, 1371년에는 태상소경(太常少卿)으로 옮겼다가 중정대부(中正大夫) 성균사성을 배수하였다. 1372년(공민왕 21)에는 지밀직사사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고려 자체들의 입학을 요청하였다. 이듬해 귀국하여 성균관대사성을 배수하였다. 1374년에는 잠시 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로 외직을 맡기도 하였다.

포은은 입사(入仕) 초기 여진 토벌을 종군하거나 공민왕 말년에는 외직을 역임한 바 있지만, 공민왕대의 주요 활동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362년 예문검열을 제수하고, 5년 후 이색의 천거로 예조정랑으로 성균박사를 겸하면서 공민왕 재위 기간에는 성균관을 떠나지 않았다. 이 시기 개혁의 중심을 성균관을 통한 교

13) 도현철(1999), 「사대부의 성장과 분기」,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참조.

圖隱臺 永慕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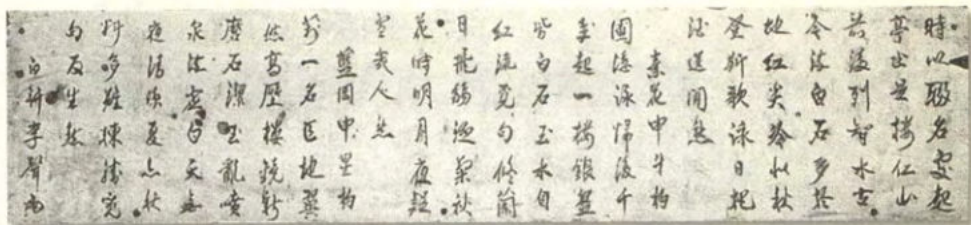


육에서 찾으려는 공민왕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포은은 학관의 자격으로 성균관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진로를 다져나가는 한편, 함께 참여한 김구용(金九容)·박상충(朴尙衷)·박의중(朴宜中)·이승인(李崇仁) 등을 만나면서 성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으로 치닫고 있던 고려 왕조의 운명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동지로서의 교유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의 결합은 이후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셈이다.<sup>13)</sup>

포은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사회의 학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오경을 토대로 성균관을 구재학규(九齋學規) 체제로 개편하여 유생들에게 유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한편, 성리학의 보급에 힘썼다. 물론 포은이 성균관에 학관으로 참여한 것은 이색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1367년(공민왕 16)의 교육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학자로서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 공양왕 때 고려 사직을 둘러싼 이성계와의 대치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성균관에서의 활동으로 7품직에 불과했던 성균박사에서 4년만인 1371년에 종3품직인 성균사성으로 승차하였다는 사실은 성균관에서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sup>14)</sup>

포은의 성균관에서의 활동은 공민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포은은 1375년(우왕 1) 다시 성균관대사성을 보임하였다. 공양왕 즉위후에도 성균관대사성(成均大司成)을 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개혁의 움직임은 공민왕의 피살과 함께 중단되었다. 우왕 즉위후 이인임(李仁任)으로 대표되는 친원(親元) 세력들이 친명(親明) 정책을 선회하여 북원(北元)의 사신을 맞이하려 하였다. 이에 성균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박상충·김구용 등은 부당함을 극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 유배되었다. 포은 역시 이때 언양(彦陽)으로 유배되었다.

14) 신천석, 1998, 『정몽주의 학문과 교육사상』,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사상』, 명지대 출판부 참조.



酌川亭内 圃隱先生 追慕 詩懸板

## 2) 외교관(外交官)으로서의 활동

우왕·창왕 때 포은의 활동은 외교관으로서의 대외활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포은은 대외관계를 둘러싼 이인임 세력과의 갈등으로 언양에 유배된 지 2년만인 1377년 소환된다. 그리고 전대사성(前大司成)의 자격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면서 외교적 능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공민왕 말년부터 몇 차례 일본과 명나라에 사



포은선생이 언양유배 당시에 왕래한 立巖과 立巖寺

신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우게 된다. 먼저 외교관으로서의 행적을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 사신 파견 시기와 내용

시 기	대상	내 용
1372.3~1373.7	명(明)	자제의 입학을 요청, 서장관 자격
1377.9~1378.7	일본	왜구의 침구 방지와 교린(交隣)의 뜻 전달
1382.4	명(明)	진공사(進貢使), 명의 거절로 돌아옴
1382.11	명(明)	청시사(請諡使), 명의 거절로 돌아옴
1384.4~1385.4	명(明)	성절사(聖節使), 서장관 정도전과 동행
1386.2~7	명(明)	관복(官服) 요청, 세공(歲貢) 면제
1387.12~1388.1	명(明)	조빙사(朝聘使), 명의 거절로 돌아옴

## 서장관(書狀官)으로서 명나라 사행(使行)

포은이 처음 외교사절로 파견된 시기는 명이 촉(蜀)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기 위한 1372년(공민왕 21)이다. 이때 포은은 지밀직사사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으로 파견되었다.<sup>15)</sup>

돌아오는 길에 허산(許山)에서 풍랑을 만나 배를 잃고 표류하다가 겨우 암도(巖島)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홍사범을 비롯하여 대부분은 익사하고, 포은 역시 죽을 뻔하였으나, 다래 껍질을 베어먹으며 13일을 버티다 겨우 명나라에서 보낸 구조선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귀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모진 곤경 속에 이루어진 첫 번째 남경(南京)으로의 사행(使行)은 선진 문물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인 이해의 폭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때의 사행에서 고려의 자제를 태학(太學)에 입학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성리학에 기초한 교육을 토대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명나라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계기도 되었다.

1375년(우왕 1)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제배하였다가 성균

15)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1년 3월 및 『포은집』 권3, 부록, 「행장」 참조.

대사성으로 옮겼다. 이때 김의(金義)가 명나라 사신을 죽이고 북원(北元)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두려워하여 공민왕의 죽음을 명나라에 알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은은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공민왕의 죽음과 김의의 사건을 해명하는 사신을 보낼 것을 건의하여 명나라의 의혹을 풀도록 하였다. 아울러 명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포은의 대외관을 충분히 시사한다.

#### 일본 사행(使行)과 패가대(霸家臺)와의 담판

우왕 즉위와 함께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淵) 등은 친원 외교로 회귀하여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려고 하였다. 이에 포은은 천하가 이미 명(明)에게 돌아갔는데, 명을 버리고 원(元)을 취하면 북방의 작은 적을 늦추려다가 오히려 명의 침입을 받아 백성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이유로 친원 외교에 반대하며 명과의 관계 회복을 건의하였다가 이들에 의해 연양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후 포은이 사신의 자격으로 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1377년(우왕 3)이다. 이 시기 고려는 왜구의 침입과 약탈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지만, 이들을 퇴치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단지 왜구들이 출몰하는 곳에 군사를 파견하여 전투를 벌인다거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경계를 강화하거나, 축성(築城)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었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1376년에는 나흥유(羅興儒)를 구주(九州)의 패가대(霸家臺)에게 보내 화친할 것으로 회유하였다. 이듬해에는 안길상(安吉祥)을 파견하여 왜구의 침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흥유를 비롯하여 주장(主將)들이 체포되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겨우 생환되었다.



觀音寺(日本, 九州)

이런 와중에서 패가대는 고려에 통교(通交)를 요청하고, 고려 정부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일본 사행을 포은에게 맡기게 된다. 여기에는 이인임 등 당시 친원 세력들이 위험천만한 것으로 여겨지던 일본으로의 사신 파견을 정몽주에게 강요함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위태롭게 여겨 주저하였지만, 포은은 거리낌 없이 사신으로 가서 예전에 교린 했던 제반의 이해 관계로 패가대를 설득시켜 일본 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고려의 양가(良家) 자제들이 노예로 전락하였음을 보고 재상들에게 사제를 내도록 함과 동시에 글로서 적의 괴수를 설득하여 돌아올 때는 윤명(尹明)·안우세(安遇世) 등 수 백명을 동반하여 귀환하였다. 삼도(三島)의 침략도 금지시켜 왜인들의 청송도 들었다. 이에 그의 문장에 감복하여 시를 칭하는 왜승(倭僧)이 있는가 하면, 훗날 그의 죽음을 듣고는 탄식하거나 재승(齋僧)하며 복을 비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일본 사행에서 귀환 후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를 제배하였고, 전공(典工)·예의(禮儀)·전법(典法)·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였다. 또 1380년(우왕 6)에는 운봉(雲峰)에 들어온 왜구를 정벌하기 위해 이성계를 종군하였으며, 돌아와서는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거쳐 이듬해 첨서사사(簽書司事)를 배수하였다.

16) “登州望遼野 遼矣天一涯  
 溟渤限其間 地分夷與華…” 및 “入京” “江南形勝地 千古石頭城 綠水環金闕 青山繞玉京 一人中建極 萬國此朝正 我亦乘查至 宛如天上行”。(〈三月二十九日過海宿登州公館 郭通事金押馬船阻風未至 因留待〉 『포은집』 권1.)

5차례에 걸친 명나라 사행

고려말에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들이 표방하던 외교노선은 친명(親明)을 지속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화이론적(華夷論的) 천하관(天下觀)에 근거한다. 포은 역시 중화(中華)를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주변에 이(夷)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화에 사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고려는 바다를 경계로 중화와 구별되는 동이(東夷)로 인식하고 있다.<sup>16)</sup>

<조복을 내리신 은혜에 하례하며(蒙賜朝服行賀禮)>라는 시에서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sup>17)</sup>

상국에서 문치를 숭상하니	上國崇文治
번방에서는 태평을 하례하노라	藩邦賀太平
성은이 미천한 내게까지 미쳐	聖恩榮賤介
조복으로 명정(明庭)을 배례하였네	朝服拜明庭
햇빛은 두루마기 빛깔을 더하고	日照添袍色
청풍(淸風)은 패옥(佩玉) 소리를 보내니	風淸送佩聲
소신이 어찌 갚을 수 있겠나	小臣何以報
억만년 황제를 축수할 뿐이네	億載祝皇齡

(포은집, 권1)

이 같은 천하관은 중화(中華)의 개체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을 차지하는 존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진지도(女眞地圖)를 보고 지은 시작품에서 완안부(完顏部)가 성장한 여진족이 요(遼)와 송(宋)을 멸망시키고 금(金)을 건국한 사실을 한(漢)과 당(唐)의 건국에 비유하고 있음은<sup>18)</sup> 포은이 지니고 있던 화이론적 천하관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참고된다.<sup>19)</sup>

포은은 일본 사행 이후 5차례에 걸쳐 명나라 사행하였다. 하지만 이중 3차례는 명나라가 요동에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 도중에서

17) 다음의 시 역시 이런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포은집』 권 2, 「송주전부탁한조(送周典簿倅還朝)」 “大明聲教暨東溟 藩國年年貢帝庭 天子遠頒新龍典 使臣來續舊圖經 鷄林樹葉心同赤 龍首山光眼共青 夷夏即今歸混一 臨分不用涕頻零”.

18) “曾聞 磐矢貢明堂 肅慎遺民此一方 雪白山山南走遠 天連黑水北流長 完顏偉量吞遼宋 大定豐功遍漢唐 坐對地圖遺嘆息 古來豪傑起窮荒” (<女眞地圖> 『포은집』 권2).

19) 유경아는 이를 형세론적(形勢論的) 도통론(道統論)으로 설명하고 있고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53~55쪽) 도원철은 형세·문화론적 화이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 연구』, 102~119쪽).

돌아왔다. 2차례는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그중 한 차례가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된 1384년(우왕 10)의 사행이다. 이때는 명나라가 고려에 출병하기 위해 세공(歲貢)을 증액하는 한편, 5년간의 세공이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고 트집하며 고려의 사신인 홍상재(洪尙載)·김보생(金寶生)·이자용(李子庸) 등을 유배하여 양국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때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료들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를 꺼려하였다. 명나라 황제까지 이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포은은 정도전을 서장관으로 대동하여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홍상재 등 억류되어 있었던 사신들까지 석방시켜 귀환하였다. 이때 우왕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포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포은 또한 우왕의 그 같은 입장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듬해 집에서 우왕과 최영·이색·조민수 등이 잔치를 베풀고 있음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차례의 명나라 사행은 1386년에 있었다. 포은은 다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이제까지 5년간 미납된 세공은 물론, 명에서 늘려 정한 세공의 액수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 뜻을 관철시켰다. 우왕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의대(衣帶)와 안마(鞍馬)를 내려주고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제배하였다.

### 곤궁한 백성을 위한 문신(文臣)의 직분

당시 명이나 일본으로의 사행은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다. 명나라에 갔던 몇몇 사신들이 구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사신의 임무를 꺼리고 있었다.<sup>20)</sup>

1382년(우왕 8) 포은과 함께 명에 사신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지문하사(知門下事) 안경(安慶)이 엄흥방(廉興方)에게 뇌물을 주고

20) 『삼봉집』 권 3, 「상공양왕소(上恭讓王疏)」 참조.

전문하평리(前門下評理) 홍상재(洪尙載)로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실은<sup>21)</sup> 이런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1384년 정도전과 함께 다녀왔던 사행은 밀직부사 진평중(陳平仲)을 대신해서 간 것이었다. 명에 사신으로 가기를 꺼리던 진평중이 임견미(林堅味)에게 뇌물로 노비 수십 여명을 주고 병으로 사퇴하여 임견미가 포은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행이었다. 포은도 사행 중에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특히 1384년의 사행에 앞서 우왕이 포은을 불러들여 의중을 묻고 있음은 이 당시의 급박했던 양국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신으로 파견된다는 사실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의 사신 파견에 대해 “남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조금도 어렵게 여기는 빛이 없었다”고 하여 그의 남다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도 있지만, <갑진년 중추에 심회가 있어(甲辰中秋有懷)> <단주성에서(端州城)> 같은 시작품에서 사신으로서의 고충을 읽을 수 있다.

공명과 부귀는 너의 일 아닐텐데  
해마다 나그네 길 무슨 기약 있겠는가  
내년 어느 곳에서 밝은 달 볼 것인가  
홀로 남쪽 하늘 바라보며 시를 읊조리네

功名富貴非汝事  
客路年年有底期  
明年何處逢明月  
獨坐南窗自詠詩

(포은집, 권2)

슬프다! 오랜 나그네와 같은 나의 길이어  
해를 넘겨서도 오히려 쉬지를 못하네  
봄바람이 불 때 요좌(遼左)의 도로에 있고  
가을비가 내릴 때 해동에 들어섰네

久客嗟吾道  
經年尚未休  
春風遼左路  
秋雨海東頭

(포은집, 권2)

위의 시들은 한결같이 계속되는 이국 땅에서의 어려움을 읊고 있

21) 『고려사』 권126, 열전 39, 임흥방 참조.

다. 사신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객지에서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민감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압감은 그 길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 명나라의 사행은 대부분 권신들이 포은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친원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신으로서의 임무는 포은에게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말이 명백하고 정대하여 막히는 기운이 없었다”거나<sup>22)</sup> “학문은 고금을 통하고 기질이 순후하면서도 방정하며 언어가 따듯하고 능변이 있다”<sup>23)</sup>고 하는 정도전과 이승인의 평가는 포은이 지닌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몇 차례의 사행은 포은에게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도전이 포은의 사행에 대해 “명나라가 들어선 후 세 번이나 경사(京師)로 출사함에 그 소견이 더욱 넓어지고 생각이 더욱 깊어 졌으며, 계책이 더욱 고원(高遠)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4)</sup>

포은의 사신으로서의 활동은 무력에 의한 해결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위주로 하는 외교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홍건적·왜구·여진 등의 침입으로 몇 차례 전쟁에 종군하면서 목도한 백성들의 곤궁한 처지를 절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서생(書生)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기도 했다.

포은은 일찍이 한방신을 따라 종군하기도 하였다. 1380년(우왕 6)과 1383년에는 이성계를 따라 운봉(雲峰) 등에서 왜구와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종군의 경험은 백성의 고단한 삶에 대해 고민하게 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것이 백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그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 시 <요하조운(遼河漕運)>에서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22) 『삼봉집』 권3, 「포은봉사고서(圃隱奉使藁序)」 참조.

23) 『포은집』 권3, 부록, 「송정달가봉사일본시서(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참조.

24) 『삼봉집』 권3, 「포은봉사고서(圃隱奉使藁序)」 참조.

메벼는 동쪽 오(吳)로부터 온다네	粳稻自東吳
봉수는 만리에 걸쳐 연이어 있고	萬里連烽燧
수많은 배들은 머리와 꼬리를 잇달아 있네	千帆接舳舻
임금은 먼 곳의 경략(經略)을 근심하고	主憂因遠略
군사들은 배부름만을 서로 즐긴다네	師飽只相娛
어찌 둔전(屯田)의 경작을 늘려	安得增屯種
수요를 충족하게 할 것인가	於焉足所需

(포은집, 권1)

이 시에는 전쟁의 와중에서 백성들의 곤궁함에 대한 심회가 잘 드러나 있다. 전쟁 비용에 대한 수요가 백성들의 몫임은 당연하다. 포은은 문신이였다. 전쟁에 종군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결국 책임에서 헤어날 수는 없었다.<sup>25)</sup> 문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중국에는 백성들이 곤궁해진 원인 역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를 무릅쓰고 함주로 동행하며(咸州東行冒雨)>라는 시에서도 그 같은 면모를 살필 수 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동행하여	東行冒零雨
반달을 보고 함주에 도착하였네	半月到咸州
밤들어 슬픈 노래가락 일어나고	入夜哀歌發
가을 내내 옛 성만 수리하였네	經秋古壘脩
피곤한 백성들 태평을 고대하고	疲氓苦思理
밝은 군주 근심 없애기를 고대하네	明主肯無憂
스스로 부끄럽다! 서생들이여	自愧書生輩
부질없이 흰머리만 무성하네	徒然白了頭

(포은집, 권2)

이 시에 표출된 것처럼 포은은 그가 처한 직분에서 백성과 나라

25) 『포은집』 권 2, 「지함주차  
척약재시(至咸州次楊若齋  
詩)」 “落葉正續紛 思君不  
見君 元戎深入塞 驍將遠分  
軍 山塞行逢雨 城樓起望雲  
干戈盈四海 何日是 脩文”.



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변민하였다. 그것은 혼란했던 고려사회의 안정이었다. 그리고 왜구·홍건적·명나라 등에게 무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백성을 도탄에 몰아 넣는 결과만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다고 고려의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은 역시 고려의 국방력 확충을 대외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1375년(우왕 1) 이인임 등이 주장하는 친원 정책을 반대하며 올린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상소>에서 정료위(定遼衛)와 약속하여 군사를 길러 사변(事變)에 대비하면서 성언(聲言)하여 북으로 향하면 원나라의 유종(遺宗)들이 자취를 감추고 멀리 달아날 것이라 하였다.<sup>26)</sup> 이 같은 발상은 빈번한 이민족의 침입에 고려의 국방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당면 현실에서 국방력의 확충이란 요원한 문제였고,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고단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포은이 당시 명나라나 왜구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대외 문제를 외교적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중요한 이유이다. 명나라의 존재는 형세를 중시하는 화이론적 천하관에 의해 조공(朝貢)을 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했다. 그의 관심은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노력에 있었고, 백성을 전쟁으로 내몰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다한 세공(歲貢)을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현실적인 것에 있었다.

이 무렵 1385년(우왕 11)에 포은은 동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하고 우홍명(禹洪命) 등 33인을 선발하여 인재를 얻었다는 칭송을 들었다. 특히 중장(中場)에서 떨어진 의비(懿妃)의 동생인 노귀산(盧龜山)을 급제시키려는 지공거 염국보(廉國寶)의 시도에 반대하였다. 이듬해에는 명나라에 원의 유습인 호복(胡服)을 폐지하고 중국의 제도를 따를 것을 건의하고 돌아와서 문하평리(門下評理)를 배수하였다. 이듬해에는 해직을 청해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1388년에는 삼사좌사(三司左使)를 제수하여 권문세족들이 민전(民田)을 점탈하여 토지제도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26)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원년 5월 참조.

깊이 인식하고 사전(私田)을 개혁할 것을 상소하였다. 창왕이 즉위한 뒤로는 예문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이 때 주창한 호복의 폐지와 중국 제도의 수용은 그의 천하관 내지 현실적인 대외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권신과 간신들이 탈점하고 있던 민전(民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전 개혁의 요청은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중심으로 최영(崔瑩)이 주도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에 부응하는 것으로, 포은이 그 사업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 3) 공양왕 추대와 이성계의 반목(反目)

#### 이성계와의 만남, 위화도회군

포은과 이성계의 첫 번째 만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363년(공민왕 12) 8월 좌주 한방신이 동북면도지휘사로 화주(和州)에서 여진을 정벌할 때 종군하였는데, 이듬해 2월 서북면에서 원병을 이끌고 온 이성계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이때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 『고려사』 등에는 정몽주가 이성계를 쫓아 종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7)</sup>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및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4년 4월 참조.



大捷碑閣

27)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및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4년 4월 참조.

그러나 이것은 조선 건국세력의 입장에서 편찬된 두찬(杜撰)임이 분명하다.<sup>28)</sup> 이후 이들은 1380년(우왕 6)과 1382년 왜구의 구락에 조전원수의 자격으로 운봉(雲峰) 등지에서 이성계를 쫓아 종군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몇 차례에 걸친 명나라 사행의 성과로 포은은 정치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1388년(우왕 14) 조반(趙胖)의 옥사(獄事)<sup>29)</sup>를 계기로 이인임과 임견미 등은 제거되고<sup>30)</sup> 포은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욱 강화된다. 최영·이성계와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하지만 그의 부단한 노력으로 화해를 모색하던 명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명나라에서 말 5천필을 요구하고 요동을 폐쇄하여 사행의 왕래를 단절시키는 한편, 철령(鐵嶺) 이북을 차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한다고 고려에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이 같은 요구는 고려 조정을 양분시켰다. 최영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정벌론(遼東征伐論)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론이 그것이다. 그 해 4월 우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 정벌을 결행하지만, 이를 반대하던 이성계 세력은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숙청한다. 그리고 회군에 참여했던 조민수(曹敏修)·조준(趙浚) 등을 앞세워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이때 포은이 위화도회군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회군 이전의 관직인 삼사좌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몇 차례의 사행 경험이 있는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데 대한 부담감, 그리고 서생(書生)으로서 종군하면서 목도한 백성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최영의 요동 정벌보다는 이성계의 회군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력보다는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 고려의 대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점 역시 참고할 수 있다.

포은과 이성계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는 위

28) 이형우(1990), 「정몽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고찰 -공양왕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1, 한국사학회, 58쪽.

29) 염흥방(廉興邦)의 가노(家奴) 이광(李光)이 조반(趙胖)의 토지를 탈점하자 조반이 이광을 베고 그 집에 불을 지르면서 발단이 된 옥사 사건을말함.

30)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3년 12월 및 14년 정월 참조.

화도회군 직후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지속적인 이민족의 침구와 위협 속에서 서생(書生)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던 그의 입장에서 사직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무력 역시 필요한 것이었다. 왜구·흉건적 등의 구락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백성들을 위해 전쟁터에서 혼신을 다하던 이성계는 포은이 바라던 장수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보수적인 문벌이나 친원 세력이 아닌 한미한 문사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가진 포은이 이성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성계를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송헌 이시중의 화상을 기리며(松軒李侍中畫像讚)>라는 시에서 그 같은 시사를 받는다.

풍채의 호준함은 화봉의 매이고	風彩豪俊 華峰之準
지략의 심웅함은 남양의 용이로다	智略深雄 南陽之龍
묘당에서 국사를 판결하기도 하고	或判事廟堂之上
유악에서 승리를 결정하기도 하였네	或決勝帷幄之中
창해에서 큰물을 막고	遏洪流於滄海
함지에서 해돋이를 도왔네	扶日出於咸池
간책에서 옛 사람을 찾아보니	求古人於簡策
공과 같은 사람은 드물도다	蓋如公者幾希

(포은집, 권3, 잡저)

포은이 이성계를 칭송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고려 사직의 보존과 부정이라는 궁극적으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놓였다. 위화도회군은 고려의 사직을 부정하고 역성혁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런 와중에서 우왕의 폐위, 창왕의 즉위와 폐위, 공양왕의 추대 등은 일련의 개혁의 과정이 아니라 신왕조를 개창하기 위한 이성계 세력의 수순에 불과했다.

포은은 한미한 가문의 문사로 좌주의 도움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처지였다. 그럼에도 고려말의 격동기중 한 시기인 공민왕·우왕·

창왕 때를 거치며 조정의 주목받는 관료로 성장한 것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적 토대와 북원·명·일본·고려 등을 위시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꿰뚫는 대외관, 고려 사직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개혁의 수행에 필요한 현실 정치의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이색을 중심으로 박의중·이승인·김진양 등과의 교류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후 그의 정치적 향배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심화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가문이나 제반 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왕 때는 대외 문제를 놓고 이인임 등 친원 세력의 노선에 직접 반대하고, 요동 정벌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위화도회군에 동조하였다. 여기에는 중원의 주인이 원에서 명으로 바뀌었다는 그의 형세론적 천하관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회군 이후 공양왕의 영입과 전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그는 이색·이승인 등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는 한편, 이성계와도 서서히 반목하게 된다.

### 공양왕 추대

공양왕의 즉위를 계기로 포은은 이제까지 성균관에서 교류하며 노선을 함께 했던 이색·길재(吉再)·권근(權近) 등과 정치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우·창왕의 폐위와 공양왕의 추대에 대해 이들과 입장을 달리했다. 이색을 위시한 사대부들은 우·창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이들의 폐위 자체를 고려의 종말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포은은 우·창왕이 비록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고려의 사직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양왕의 추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양왕 즉위와 함께 문하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호조상서사

진현각대제학 지경연 춘추관사 겸성군대사성 영서운관사(門下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 戶曹尙瑞寺事 進賢閣大提學 知經筵 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 領書雲觀事)를 제수하고, 순충논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과 익양군(益陽郡)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다.

이색 등과 달리 이성계 세력에 의한 우·창왕의 폐위에 동조하고 공양왕의 추대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는 점은 포은이 군주와 신하의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시사한다. 포은은 군주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존재이며, 신료는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주의 보필을 책임지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정(善政)을 베푸는 군주의 명령은 국가를 대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신하는 백성을 위해 군주를 등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sup>31)</sup> 이 때문에 회군 직후 윤소종(尹紹宗)·조인옥(趙仁沃) 등 이성계 일파가 광광전(曠光傳)을 거쳐 우왕을 폐위하고 왕씨를 세울 것을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sup>32)</sup> 이성계 세력과 별다른 반목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우·창왕의 실정은 공양왕의 추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 이성계의 반목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고 신왕조 건설을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창당(禰昌黨)으로 불리는 구세력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개편하는 것과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경제기반의 확보, 즉 사전(私田)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물론 백성들이 송곳을 세울 만큼의 경작할 땅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 개혁으로 민생의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조준(趙浚)의 상소는 당연한 것이지만,<sup>33)</sup> 그것은 회군 세력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31)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 활동 연구』, 59~62쪽.

32) 『고려사절요』 권33, 우왕 14년 6월 참조.

33) 『고려사절요』 권 33, 창왕 원년 7월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 세력이 주도했던 급진적인 사전 개혁에 반대하고 우·창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던 이색·조민수·권근·하륜·이종학·이승인 등이 '우창당'으로 숙청되기에 이르렀다. 포은은 이때부터 이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게 된다. 그가 '우창당'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처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함장(函丈)으로 섬기고 있었지만,<sup>34)</sup> 창왕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색에 대해 "죄는 되지 않지만, 절조(節操)가 없다"고 애매한 태도로 비판하고 있는데서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고려 사직의 존속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의 인식 정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은이 '폐가입진(廢假入眞)'의 명분으로 이성계 세력과 함께 공양왕을 추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계의 노선에 완전히 동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이성계 일파의 신왕조 개창이라는 일련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고려의 존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1390년(공양왕 2) 7월 '이초당(李初黨)'을 재차 논핵하면서 그 움직임은 분명해진다.

윤이(尹彝)·이초(李初) 사건은 1390년 5월 공양왕과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반대한 이색·조민수 등 19인을 살해하고 유배를 보냈는데, 그중 유배지에 있던 재상 등이 윤이와 이초를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 명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이성계 세력을 토벌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유언비어에서 시작되었다.<sup>35)</sup> 이 사건은 공양왕이 '우창당'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라 정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이성계 세력의 조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sup>36)</sup>

즉 '우창당'의 처리 문제로 공양왕과 대립했던 이성계 세력은 1390년 4월 회군공신(回軍功臣)을 확정·포상하는 등 자신들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계기 또한 모색하고 있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윤이·

34) 『포은집』 권2, 「차목은선생 문질석유안화사(次牧隱先生饋七夕遊安和寺)」 참조.

35)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 5월 참조.

36)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 활동 연구』, 93~110쪽.

이초의 사건이다.

이런 와중에 이성계 세력의 고려의 부정과 신왕조 개창 음모는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에 반대하는 인물들은 고려 사직의 유지를 위해 점차 포은을 중심으로 일군을 이루게 된다. 이성계 세력이 '이초당'을 논핵하며 자신들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자, 포은은 고려 사직의 존립을 위해 이성계와 반목하며 이색·권근 등의 사면을 건의하여<sup>37)</sup> 구세력과 재결합을 시도한다. 특히 공양왕의 4대를 추봉(追封)하는 기회를 틈타 구세력에 대한 건의는 곧 바로 김사형(金士衡)·안경공(安景恭) 등을 위시한 사헌부와 형조의 반발에 부딪친다.<sup>38)</sup> 이에 고려 사직의 존립을 위한 포은의 세력과 신왕조 개창을 위한 이성계 세력의 대립과 반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 '이초당'의 처리를 위해 도당(都堂)에서 열린 논의에서 그가 "윤이·이초의 무리는 죄가 명백하지도 않고, 또 이미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논죄할 수 없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의 문제에 고려의 사직이 달려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포은은 이 시기에 무너져 가는 고려왕조의 유지를 위해 마지막 노력의 중심에서 있었다.

### 정몽주의 피살과 고려의 종말

이후 포은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양 세력은 고려왕조의 존립과 역성혁명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드러낸다. 이성계 세력에 의해 주도된 역성혁명은 "군주에게 천명(天命)이 떠났으면 일개 필부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유덕자(有德者)·지인자(至仁者)를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맹자』에서 근거한다. 이들의 논리라면 공양왕은 천명과 인심을 잃은 필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포은의 입장에서 공양왕은 태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천(代天)의 군주였다. 이것이 공양왕을 도와 고려 사직을 보존하려는

37)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7월 참조.

38) 『고려사』 권104, 열전 17, 김방경 부 김사형 참조.



명분이었다. 이에 이성계 세력과의 반목과 견제를 계속하며 500년 사직의 존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391년(공양왕 3) 인물추변도감제조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에 임명되어 인사권을 총괄하는 한편, 12월에는 이른바 5죄(五罪)에<sup>39)</sup> 대한 실상을 밝혀 정도전 등과 본격적인 대립을 시도하며, 안사공신(安社功臣)의 이름을 더하였다. 또 1392년에는 불공정한 현실의 개혁을 위해 대명률(大明律) 지정조격(至正條格)과 고려의 법령을 산정(刪定)하여 신정률(新正律)을 바꿨다. 공양왕은 지신사(知申事) 이침(李詹)에게 6일 동안이나 진강하도록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정교함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신정률의 내용이 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시 이성계 세력을 염두에 두고 고려사회의 정통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개혁 입법으로 짐작된다. 즉, 이성계 일파를 타도하고 고려 왕권의 계승을 위한 비상수단이었을 것이다.<sup>40)</sup> 이런 점에서 당시는 공양왕의 후원을 입은 포은의 세력이 이성계 세력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정국이 이끌어 갔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성계 세력의 건국을 위한 반대파 숙청이 한창이던 1391년 정월에, 편수관(編修官)을 두어 주자(朱子)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모방해서 역사를 편찬하여 향후를 대비할 것을 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sup>41)</sup> 이 건의는 수용되어 이색과 이승인에게 실록을 찬수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실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시점에서 『통감강목』을 모방한 실록을 편찬하려는 의도는 반역자를 응징하여 군주의 명위(名位)를 회복하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즉, 이성계 세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경계하고, 형벌이 왕의 처결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포은의 역사가관이 성리학의 대의명분론에 입각한 도덕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sup>42)</sup>

1392년(공양왕 4) 3월 이성계가 해주(海州)에서 사냥을 하다가 다쳐 위독하다는 말이 퍼졌으며, 김진양(金震陽) 등에 의해 이성계 세력은 먼 지방으로 유배되어 와해될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위

39) 5죄는 ① 왕씨를 세우는 의논을 저지시키고 창(昌)을 세운 사람 ②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한 사람 ③ 신우(辛禰)를 맞이해서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고 한 사람 ④ 윤이와 이초를 명나라에 보내 명 황제가 군사를 움직이기를 청한 사람 ⑤ 선왕의 열손(孽孫)을 몰래 피어 반역을 꾀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 『고려사』 권 117, 열전 30, 정몽주 참조.

40) 신천식, 『목은 이색의 학문과 학맥』, 287~288쪽.

41) 『고려사절요』 권 35, 공양왕 3년 정월 참조.

42)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66~67쪽.

협을 느낀 이성계 세력은 4월 이방원(李芳遠)의 주도아래 포은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성계의 문병을 다녀오던 포은을 조영규(趙英珪) 등으로 하여금 선죽교에서 살해하게 한다.<sup>43)</sup>

포은의 피살에 대한 『고려사절요』의 기록은 반대파에 있던 세력층의 주도하에 편찬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고 해도 이성계 세력의 입장에서는 포은을 추종하는 세력층에서 이성계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린 후 긴급하게 실행된 반격의 성격 을 띠고 있다.

“정몽주가 우리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해짐에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을 그곳으로 돌리자 이를 꺼려하였다. 조준·정도전·남은 등이 비로소 태조를 추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태조의 병이 위독한 것을 이용하여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조준·정도전·남은 및 평소에 태조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 5~6명을 탄핵하여 죽이고 태조까지 미치게 하려고 하였다”(『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4년 4월)

이 기록에 의하면, 포은이 이성계의 문병을 핑계로 공양왕의 지지를 토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전에 그 같은 계획을 탐지한 이성계 세력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반대파인 포은을 제거함으로써 신왕조 개창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정몽주당(鄭夢周黨)’의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고려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포은을 중심으로 한 고려왕조 유지 세력이 역성혁명 세력에 별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너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기반의 취약성에 있다. 그들은 대부분 공양왕의 측근에서 간관(諫官) 등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장악하고, 왕을 움직여 이성계 세력에 대응해 갔다. 반면 그들의 군사적 기반은 왜구·흉건적과의 전쟁에서 성장한 이성계 세력에 비교할 수 없이 빈약했다. 물론 포은 역시 외침에 대비한 군사력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왜구

43)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4년 4월 참조.



石城遺蹟(김해)

의 침략에 대해 산성을 수축하고 봉수를 설치하여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인마(人馬)와 재물을 산성에 옮기고 험한 곳을 끼고 적에 맞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sup>44)</sup> 몇 차례 종군하면서 경험한 전쟁에서 군사력의 확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의 인식일 뿐, 자신의 가병(家兵)을 이끌고 있던 이성계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위 '정몽주당'의 결속력 부족도 패인으로 들 수 있다. 포은은 한미한 가문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고려 조정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나, 대부분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 계층이다. 이들은 고려 사직의 유지라는 명제에는 동조하였지만, 정국의 운영방향이 격변하면서 각 사안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며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혁명파의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결국 포은의 피살은 곧바로 고려의 종말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44) 『포은집』 권3, 잡저, 「김해산성기(金海山城記)」

## 포은 정몽주의 사상과 학문

夫道之理未嘗有無漸而成者春夏之陽始於前  
 而之繁肇於纒落故天將啓漢家之治道則文章  
 變於戰國之世將興洛建之道學則五星已聚於  
 三季之時蓋理有漸而氣先至也唯我東方表為大  
 一上世蓋質質而夷也自殷師以洪範之道來教  
 而三綱明九疇叙矣其後數千餘載而我國隱先  
 生挺生麗季盡忠所事畢命改社其扶倫立彛之  
 圖足以軒天地曜日月然此則素聚文山之事爾  
 矣為先生之至也唯其遠承殷師之道近守釋  
 圖隱先生集卷之六 卷首  
 法以啓我 朝文明之盛俾我東表之人世受開  
 一恩者固不可數計而周知也昔我 仁廟大王  
 又學童甫請伸靜庵趙文正其言曰光祖學於金  
 宏弼學於金宗直宗直學於其父叔滋叔滋學  
 再吉再之學出於鄭夢周而夢周實為理學之  
 其道學醇疵雖各不同其淵源所自因略可見而  
 正之後儒術之盛又可以追蹤於宋之豐枯於  
 則尊宗亦本匪先生伊誰歸哉然則殷師之生非  
 一幸而我東之幸也先生之生非麗氏之幸而東  
 一幸也定哉 朝文治如此其盛而天不假年

### 1. 조선 철리학에서의 포은의 위치

#### 『고려사』에서의 평가

조선 건국 이후 『고려사』의 편찬이 전왕조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  
 한 것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포은에 대한 고려사에서의 평가는 부  
 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조선 건국 직후 도  
 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및 대소 신료 등이 지밀직사사 조반을 명나  
 라에 예부(禮部)에 태조의 등극을 알리자는 상소나, 전문하평리 유  
 만수(柳蔓殊)·참찬문하부사 최영지(崔永祉) 등을 원종공신으로  
 포상하라는 교지를 내리고 있는데서 그가 간사한 계책으로 난을 일  
 으키려고 했다는 내용 등은 그 같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sup>45)</sup> 그러나  
 『고려사』에 소재한 열전에서는 고려의 사직을 위해 창업파 세력과  
 반목하며 끝내는 이들의 조선 건국을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막으려  
 고 했던 것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몽주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고(至高)함이 호매(豪邁)하고 절륜(絶倫)

45)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유 및 권2, 태조 1년 10월 정사 참조.

하여 충효의 큰 절개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성리학을 궁구함에 깊이 얻은 바가 있어 태조(太祖: 이성계)가 평소 기중(器重)하게 여겨 매번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갔고 여러번 천거하여 함께 재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때는 나라에 변고가 많아 기무(機務)가 번거롭고 많았는데도, 몽주는 큰 일을 처리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는데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고도 죄우에 응답을 얻어 모두 그 마땅함을 얻었다. 시속(時俗)이 상제(喪祭)에서 오로지 상문(桑門: 불교)의 법을 숭상함에 처음으로 사서(士庶)로 하여금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모방하여 가묘(家廟)를 세우고 선사(先祀)를 받들게 하였다. 또 수령(守令)으로 참외(參外)와 이서(吏胥)를 함께 씬에 품질이 낮고 인품이 용렬함으로 비로소 참관(參官)중에서도 청망(淸望)한 사람을 가려 쓰고, 그 출척(黜陟)을 엄하게 하였다. 또 금곡(金穀)을 출납하는 도평의사사가 백첩(白牒)을 시행하여 일에 외람(猥濫)됨이 많아지자 비로소 경력(經歷)·도사(都事)를 설치하여 그 출납을 기록하게 하였다. 또 도성 안에는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밖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유술(儒術)을 일으켰다. 그밖에 의창(義倉)을 세워 궁핍함을 진휼하고 수참(水站)을 세워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하니 이 모두는 그가 계획한 것이다"

(『고려사』 권 117, 열전 30, 정몽주)

포은에 대한 평가는 성리학을 토대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략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하는 시속의 변화 도모이다. 이것은 불교적인 일상 제도를 가묘를 설치함으로써 사서에게 조상을 봉사하게 하는 한편, 오부학당과 향교의 설치로 유술(儒術)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실과 관련을 가진다. 둘째, 백성을 우선시 하는 제도적 개혁의 실천이다. 이것은 청망한 인재의 등용과 출납 제도의 개혁, 의창 및 수참의 설치와 관련을 가진다. 이 같은 그의 노력은 나라에 변고가 많아 기무가 매우 번거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색을 움직이지 않는 의지로 실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지고함이 호매하고 절륜하여 충효의 큰 절개가 있었다는 그의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성계의 배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고려사』의 정몽주 열전에서 볼 수 있는 그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신왕조의 개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간신에서 절의지사(節義之士)로

포은은 목은(牧隱)·도은(陶隱) 등과 함께 고려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추송되고 있다.<sup>46)</sup> 이병도(1946), 『두계잡필』 및 문경현(1980), 「려말 성리학파의 형성」 『한국의 철학』 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참조. 한편 도은을 대신해서 아은(治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김상기(1985),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 출판부 참조.

그에 대한 평가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간신·충신·동방 성리학의 조종으로서의 평가 등이 그것이다.

고려를 부정하고 역성 혁명에 의해 세워진 신왕조 세력에게 그는 역신(逆臣)·간신에 불과했다.

“간신 정몽주는 전하의 비호 덕분에 총재(冢宰)가 되었음에도 손수 나라의 정권을 잡고서는 왕씨의 뜻에 맞추어 대간(臺諫)을 사주하며 신(趙浚)과 정도전·남은 등이 전하의 심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틈을 이용하여 계책을 부리고 죄를 꾸며 법강(法綱)에 끌어넣어 먼저 내뱉은 후, 전하를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태조실록』 권 2, 태조 원년 12월 임술)

이 기록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1) 12월 좌시중(左侍中) 조준이 올린 글의 일부이다. 그를 비롯한 신왕조 개창에 참여한 세

46) 이병도(1946), 『두계잡필』 및 문경현(1980), 「려말 성리학파의 형성」 『한국의 철학』 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참조. 한편 도은을 대신해서 아은(治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김상기(1985),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 출판부 참조.

력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인식이기도 하지만, 조준은 포은을 전왕조의 간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그와 깊은 교류를 하였지만, 고려 사직의 존속 문제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여 역성 혁명을 주도한 정도전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도전은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하면서 그와 대립하였던 포은과 김진양 등에 대해서는 폄출(貶黜)을 가한 반면에,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기에 시비가 자신의 애오(愛惡)에서 나와 선악(善惡)이 구사(舊史)에 어긋났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여기서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sup>47)</sup>

고려말 포은의 동조세력으로 역성 혁명에 반대했던 인물 가운데는 신왕조 개창 세력의 회유로 태조 때부터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 인물도 있다. 정희(鄭熙)·성석린(成石璘)·한천(韓葺) 등은 원종공신에 책봉되고, 이침(李詹)은 몇 차례의 출사 요청을 거절하다가 1398년(태조7) 이조전서(吏曹典書)로 출사하였다.<sup>48)</sup> 이들의 건국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여전했고, 그것은 이들의 정치 활동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sup>49)</sup>

그런 와중에서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숙청되고, 이방원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정국이 변화하고, 태종은 즉위하면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은일(隱逸)하고 있던 선비들의 천거를 모색함과 동시에 여러 정치 세력의 포용을 추진한다. 이것은 신왕조의 수성을 위해 필요불급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포은에 대한 평가 역시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전조의 시중(侍中)인 정몽주는 본래 한미한 선비로 오로지 태상왕이 천발(薦拔)한 은혜를 입어 대배(大拜)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은 어찌 태상왕에게 후히 갚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재주와 식견이 밝았으니 어찌 천명과 인심의 돌아가는 바를 알지 못했겠고, 어찌 왕

47)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2월 병자; 변태섭(1982),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28쪽.

48) 『동문선』 권40, 『陳情箋』 참조.

49) 유경아(1996),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176~201쪽.

씨의 위태하고 망하는 형세를 알지 못했겠으며, 어찌 자신의 몸을 보존함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섬기던 곳에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 절조를 변치 않아 목숨을 잃는데 이르렀으니 이것은 이른바 큰 절개에 임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마땅히 봉증(封贈)하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후세의 사람들을 권면하소서”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1월 갑술)

권근은 태종에게 치도(治道)에 관한 6가지의 항목을 권고하면서 포은이 조선의 개창에 반대한 것은 천명과 인심의 향배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고려에 대한 절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쳤으니, 그 큰 절개를 포상해야 한다고 상소하고 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인사들이 태종 때 출사(出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먼저 백성의 안정을 담보로 추진했던 역성 혁명과 충절과 의리를 강조했던 성리학의 사상체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데서 찾을 수 있다. 신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의 힘에 의한 왕권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신료들의 충절과 의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포은은 그 해 11월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겸 예문관 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 修文殿大提學 兼 藝文館 春秋館事 益陽府院君)에 증직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다.<sup>50)</sup>

이처럼 간신에서 충신 또는 충절지사(忠節之士)로의 평가는 태종 때부터 점차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이(李珣)는 포은의 학문에 대해 “유자(儒者)의 기상은 있지만, 학문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자라고 볼 수 없고, 더욱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불리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사직을 평안하게 하는데 노력한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sup>51)</sup> 이 같은 이이의 입장은 간신·역신이라는 조선 초기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색에서부터 출발한

50) 『태종실록』 권 2, 태종 1년 11월 신묘 참조.

51) 『울곡전서(栗谷全書)』 권 28, 「경언일기(經筵日記)」; 권 30, 「어록(語錄)」상; 권 58, 동호문답(東湖問答), 「논동방도학불행(論東方道學不行)」 참조.



동방 이학의 조종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 이이는 유학자로서의 평가 기준을 학문의 성취 정도에 두고, 포은은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학자에도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단지 그를 충신으로만 평가하기도 했다.

### 문묘(文廟)의 종사(從祀)



종묘

조선시대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포은 사상의 핵심을 순절(殉節)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성리학자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은에 대한 존숭의 논의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은 의리와 명분에 토대한 성리학적 정통론(正統論)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절의지사(節義之士) 또는 충신으로서의 평가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학문적으로는 경학(經學)에서 이색과 대등하게 평가되었고,<sup>52)</sup> 세종 때 찬진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충신전(忠臣傳)」에 오르는 한편,<sup>53)</sup> 문종 때는 마전(麻田·연천)에 있는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또 사대교린에 입각한 대외관과 가묘(家廟)·오부학당(五部學堂)·향교(鄕校)·의창(義倉)의 설치는 성리학의 이념을 실천한 업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sup>54)</sup>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마침내 문묘에 종사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몽주→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으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도통론(道統論)으로 완성되었다.<sup>55)</sup>

52) 『세종실록』 권 68, 세종 17년 6월 무신 참조.

53) 『세종실록』 권 54, 세종 13년 11월 임신 참조.

54) 『단종실록』 권 4, 단종 즉위년 12월 신축 참조.

55) 이수건(1980),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출판부 참조.

포은의 문묘 종사를 처음 제기한 인물은 양성지(梁誠之)로 알려져 있다.<sup>56)</sup>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세조 왕권에 대한 정통성의 논란, 이후 발생한 무오사화 및 갑자사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포은의 절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의 후손을 등용하라는 건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sup>57)</sup> 중종의 즉위 후,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던 사림 계열이 대거 등용되면서 문묘의 종사 논의는 본격화된다. 이에 1510년(중종 5) 2월 이자(李紆)는 포은과 길재의 사당을 건립하여 절의를 포상할 것을 건의한다.<sup>58)</sup> 물론 이 건의는 예조에 의해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sup>59)</sup>

그 해 10월에는 정언(正言) 이여(李膺)가 이학(理學)의 종장(宗匠)인 그를 최치원(崔致遠)의 예에 따라 문묘에 종사하여 인재를 일으키도록 건의하였다.<sup>60)</sup> 이 건의는 3공(三公)과 논의하라는 왕명에 있었고, 마침내 그의 문묘 종사는 결정되었다.<sup>61)</sup>

하지만 문묘의 종사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1517년(중종 12)에는 성균관 유생 권전(權碩) 등의 상소가 있었으며, 조정에서는 예관(禮官)을 보내 분묘를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하늘이 도와 유종(儒宗) 정몽주를 고려말에 내셨으니 뛰어난 자질을 드러냈고 경제의 재주를 지녔습니다. 성리학을 연구하여 그 범위가 깊고 넓어 자득함이 있어 학문하는 사람을 강설하니 오지(奧旨)에 묵묵하였습니다. 선유(先儒)를 암합(暗合)하였고 충효의 대절(大節)은 당시를 용동(聳動)하였습니다. 상례(喪禮)를 제정하고 가묘(家廟)를 세움에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따르니, 문물과 의장(儀章)은 모두 그가 개정(更定)한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학(敎學)을 베풀어 유술(儒術)을 크게 일으키고, 사도(斯道)를 밝히고 후학을 계도함은 동방에 오직 이 한 사람 뿐입니다”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는 상소의 대략(請從祀文廟疏略)>

(포은집, 권3, 부록.)

56) 『세조실록』 권3, 세조2년 3월 참조.

57) 『성종실록』 권93, 성종9년 6월 기사 참조.

58) 『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2월 정애 참조.

59) 『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2월 무자 참조.

60)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신축 참조.

61) 『중종실록』 권 12, 중종 5년 12월 계묘 참조.

물론 포은을 문묘에 종사하지는 당시 사람들의 건의는 이 시기 성행했던 도학(道學) 유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62)</sup> 그들은 의리와 절의를 중시하며 자신들이 주도하던 도학 정치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 기원을 포은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사람의 영수 조광조(趙光祖)의 스승인 김굉필(金宏弼)을 문묘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묘에는 포은만 배향되었다.<sup>63)</sup> 아울러 왕은 포은의 무덤에 예조정랑 이순(李純)을 보내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우하여 재배례(再拜禮)를 하도록 하였다. 이조정랑 정응이 지은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뚱하신 우리 공은 퇴파(頽波)의 지주였고, 학문이 끊어진 때를 당해 개연히 일어났네. 심오한 이치를 탐구하여 평상의 도리를 열었는데, 행실은 효도와 우애를 먼저 하고, 예의는 혼례와 상례)를 강구하였으며, 일용의 일을 미루어 나라의 무너진 기강을 부식하였네. 조정이 편안하지 못해 사기(事機)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해 위난을 처리하였네. 천지에 맹세하고 사생을 걸어 일했고, 밤중에도 근심하여 눈물 흘리며 배회하였네. 운수가 돌고 돌아 어려운 때에 안정을 구하고 죽어 인도(仁道)를 이루었네. 우주처럼 광대하고 일월처럼 빛났으며, 만고토록 영원히 사람의 도(道)를 보였네. 밝고 밝으신 우리 조선(祖先)은 지공대정(至公大正)함을 밝게 펴서 시호와 작호(爵號)를 내리고, 화상을 그려 찬(讚)을 지어 대대로 충절을 심었네. 슬프다! 내 영원히 사모하여 마음 깊이 모범을 삼아 문묘에 배향하여 백성을 법칙을 밝혔는데, 이름난 저 무덤에 초목이 무성하니 부로(父老)에게 부끄럽고 훌륭한 공에게 욕되게 하였네. 이에 좋은 날 가려 무덤에 제사드리니, 영령께서는 감응하시어 아름다운 교화를 펴게 할 지어다. 돌아가서 천명에 배합하니 무덤에서 길이 편안하소서”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0월 임진)

62) 이희권, 1982, 「정몽주 문묘종사에 관한 일고찰」 『인문논총』 10, 전북대 참조.

63)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9월 경인 참조.

### 성리학적 도통론(道統論)의 완성

이상의 일로, 조선 성리학에서 포은의 위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광조 등 급진적인 개혁을 앞세우던 사림 세력이 기묘사화로 피해를 보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 후 인종 때 사림의 신원을 위한 움직임이 거론되면서 성균진사 박근(朴謹) 등은 조광조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에서 정몽주의 성리학을 동방의 조종(祖宗)으로 설정하고 그 학문의 계통이 정몽주→길재→김숙자(金叔滋)→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sup>64)</sup>

포은으로부터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론의 인식은 16세기말 사림들이 재차 정치를 주도하면서 그는 조선 성리학의 조종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sup>65)</sup> 이에 포은을 위한 서원의 건립이 논의되고,<sup>66)</sup> 임고서원에는 서책과 편액을 내리라는 건의도 있게 된다.<sup>67)</sup> 이런 가운데 17세기 말 절의 보다는 도통(道統)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는 송시열(宋時烈)의 이해는 조선 성리학에서 포은의 위치를 대변한다.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의 도를 가져와 팔교(八教)를 베풀어 삼강(三綱)이 밝아지고 구주(九疇)가 시행되었다. 그 후 수천년을 내려와 우리 포은께서 고려말에 태어나 이를 이어 받아 섬기던 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사직이 바뀌자 목숨을 던졌으니 그 인륜을 붙들어 일으키고 천이(天譴)를 다시 세운 공은 천지에 빼어나고 일월에 빛날 만 하다. … 오직 멀리 기자의 도를 잇고 가까이 회옹(晦翁: 주자)의 법을 지켜 우리 문명의 성대함을 열었다. … 조문정(趙文正: 조광조) 이후 유학의 성대함이 송(宋)의 풍우와 건승을 따를 만 하니 중을 찾고 부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이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 오직 지금 세상에 선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만 강상을 붙들어 세운 것만을 알고 유학을 천명(闡明)한 공은 혹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포은시집서(圃隱先生詩集序)〉

64) 『인종실록』 권1, 인종 원년 3월 을해 참조.

65) 『선조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1월 갑진 및 을묘: 『고봉집(高峰集)』, 논사록(論思錄) 상, 「경연계주(經筵啓奏)」; 『포은집』 권3, 부록, 「임고서원제문(臨臯書院祭文)」 참조.

66) 『명종실록』 권16, 명종 9년 6월 계미 및 갑신: 권17, 명종 9년 7월 기유 참조.

67)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1월 기해 참조.

##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祖宗)

고려말 성균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성리학 위주의 경학(經學)이었다. 이 당시 포은이 성균박사를 겸하였다다는 것은 성리학에 밝았음을 의미한다.

“이때 동방의 경서는 『주자집주(朱子集註)』 뿐이었는데, 몽주의 강설은 탁월하여 당시 학자들의 생각을 뛰어 넘어 듣는 사람들이 자못 의심하였다. 하지만 후에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을 얻어 보게 되자 여기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어 선비들은 더욱 탄복하였다. 이색은 자주 그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몽주의 논리는 횡설수설(橫說豎說)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어 동방이학의 조종으로 추대할 만 하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이 기록은 포은의 학문에 대한 이색의 평이다. 여기에서 당시 고려사회에서 성리학의 수용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유통되고 있던 자료가 『주자집주(朱子集註)』 정도였다는 사실은 성리학에 대한 고려사회의 이해 깊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포은은 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성리학의 이해 깊이를 더하였다. 그의 강설을 더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후에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을 접하고는 탄복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다. 포은의 학문적 깊이는 이색이 지은 <산기 정몽주를 생각하며(憶鄭散騎)>라는 시와 이숭인(李崇仁)이 지은 <달가 정몽주가 일본으로 사신감을 전송하는 시의 서문(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대부에 의해 사마천(司馬遷)에 비교되기도 하였다.<sup>68)</sup> 특히 이색은 그를 고려 성리학의 조종(祖宗)으로까지 추대하고 있다.

포은의 학문에 대한 대강은 정도전(鄭道傳)의 다음 평가에서 가늠할 수 있다.

68) “光風霽月鄭烏川 獨究遺篇續不傳 曾與病龜遊泮水 故承文契已多年 浮舟出使東看目 赴關生遶上 有天肯羨子長疏瀟氣 直將興喪望文宣”(『목은시고』 권15, 「德鄭散騎詩」) 및 『포은집』 권 3, 부록, 「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참조.

“목은 선생께서 재상으로 성균관을 이끌고 성명(性命)의 학문을 제창하며 부화(浮華)한 풍속을 배척하였다. … 선생은 『대학』의 제강(提綱)과 『중용』의 회극(會極)에서 명도(明道)와 전도(傳道)의 취지를 얻었고, 『논어』와 『맹자』의 정미(精微)함에서 조존함양(操存涵養)의 요체(要諦)와 체험충광(體驗充廣)의 방법을 얻었다. 『주역』에 이르러서는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서경』에서는 정일집중(精一執中)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전수심법(傳授心法)이 됨을 알았으며, 『시경』에서는 근본이 민이물칙(民彝物則)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춘추』에서 도의(道誼)와 공리(功利)의 분별하는 것을 알았다. 우리 동방 5백년 동안에 이 같은 이치를 깨달은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제생들이 자신의 학식을 고집하고 사람마다 이설(異說)을 제기하여 수시로 질문하였으나, 강론과 분석이 티끌만큼도 틀리지 않았다. 목은 선생이 기뻐하며 칭찬하여 말하기를 “달가(達可)는 호상탁월(豪爽卓越)하고 횡설수설(橫說豎說)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삼봉집』 권3, <포은봉사시고서문(圃隱先生奉使藥序文)>)

이 글에서 포은이 사서(四書)·오경(五經)을 토대로 경학(經學)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요점을 정리하면 <표3>와 같다.

<표3> 포은 정몽주의 경전에 대한 이해

자 료 명	이 해 내 용
대학(大學)	명도(明道)의 뜻
중용(中庸)	전도(傳道)의 뜻
논어(論語)	조존함양(操存涵養)의 요체(要諦)
맹자(孟子)	체험충광(體驗充廣)의 방법
주역(周易)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체용(體用)
서경(書經)	제왕(帝王)의 전수심법(傳授心法)
시경(詩經)	민이물칙(民彝物則)의 가르침
춘추(春秋)	도의(道誼)와 공리(功利)의 분별

포은은 사서·오경에서 유교적 정치이념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과 『중용』에서 이해한 명도(明道)와 전도(傳道)의 뜻을 중시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정도전과 대화 중 “사장(詞章)은 말예(末藝)에 불과하고, 『대학』과 『중용』에 갖추어져 있는 수기정심(修己正心)의 학문을 이순경(李順經)과 함께 삼각산에 있는 절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나,<sup>69)</sup> “날마다 『대학』과 『중용』을 외워 이치를 궁구하고 지식을 추극(推極)하였다”는 함부림(咸傅林)의 평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sup>70)</sup>

포은은 『주역』에도 매우 밝았다. 이것은 먼저 포은의 교유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은은 1357년(공민왕 6)에 있었던 국자감시(國子監試)에서 3등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시험을 주관한 신군평(申君平)은 역학(易學)에 뛰어났던 우탁(禹倬)의 학문을 전수한 신현(申賢)의 형이고, 그의 최주인 김득배 역시 신현에게 사사받았다.<sup>71)</sup> 또한 깊은 교류를 유지하며 비슷한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던 우현보(禹玄寶)가 우탁과 같은 가문이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sup>72)</sup> 특히 그가 본래 역리(易理)에 밝았다거나<sup>73)</sup> 복희씨(伏羲氏)의 팔괘(八卦)가 소옹(邵翁)에게 전술(傳述)되었는데 그는 역학(易學)에 심취하여 이천(伊川)을 사모하였다는 이색의 평,<sup>74)</sup> 간괘(艮卦)의 육획(六畫)만 자세히 보는 것이 『화엄경(華嚴經)』을 모두 읽는 것보다 나를 것이라고 하여 이승인과 하륜(河崙)에게 직접 『주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sup>75)</sup> 만물을 돕는 공이 『주역』에 있다는 언급<sup>76)</sup> 등은 포은의 『주역』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에 족하다.

성리학자로서의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유학자의 도(道)가 불교와는 달리 모두 일용(日用)하는 평상의 일에 관계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sup>77)</sup> 이 같은 포은의 입장은 불교 등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는 것으로 이해하거나,<sup>78)</sup> 민간신앙 등을 귀신을 섬기는 황당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sup>79)</sup> 이것은

69) 『삼봉집』 권 3, 「포은봉사고서(圃隱先生奉使藁序)」 참조.

70) 『포은집』 권 3, 부록, 「행장」 참조.

71) 『우탁선생실기』 권 2 및 『화해사전』 권 2 참조.

72) 신천식, 1998, 「정몽주의 학문과 교육사상」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사상』, 명지대 출판부, 184쪽.

73) 『목은시고』 권27, 「봉하정 포은매밀직(奉賀鄭圃隱拜密直)」 참조.

74) 『목은시고』 권 15, 「억정산기(憶鄭散騎)」 참조.

75) 『포은집』 권2, 「독역기자안대림양선생(讀易寄子安大臨兩先生)」 참조.

76) 『포은집』 권1, 「복주관중정(復州館中井)」 참조.

77) 『고려사』 권117, 열전 30, 정몽주 참조.

78) “松風江月接沖虛 正是山僧入定初 可笑紛紛學道者 色聲之外寔眞如”(『포은집』 권2, <증승(贈僧)>).

또 “염락(廉洛)의 도를 창명하고, 불노(佛老)의 말을 배척하여 강론할 때는 오로지 정밀하게 하여 성현(聖賢)의 오지(奧旨)를 깊이 체득하게 하였다”는 함부림의 평에서도<sup>80)</sup>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당시의 상제(喪制)가 불가(佛家)의 법을 숭상하고 있었던데 비해, 포은이 사서(士庶)로 하여금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받아 사가(私家)에 사당을 세우고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거나, 개경에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외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유술(儒術)을 일으켰다는 『고려사』의 내용 역시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즉 포은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인간의 심성을 회복하고 도덕의 실천을 통해 사회질서체제가 재편되기를 희망했다고 할 수 있다.

## 2. 포은 정몽주의 시세계

포은선생은 고려조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동문선』을 비롯한 여러 시선집에 선생의 시문이 비중 있게 소개되어 있으며, 비평가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중등교과서에도 선생의 시 ‘춘흥(春興)’ 등이 소개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선생의 시문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포은선생이 ‘동방 성리학의 시조’ ‘충절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진 때문이며, 작품으로 ‘단심가(丹心歌)’만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은 선생의 시세계는 실로 다양하다. 성리학을 소재로 한 사상시 ‘호중관어(湖中觀魚)가 있는가하면, 사회사라 할 수 있는 ‘정부원(征婦怨)’이 있다. 자연의 흥취에 몰입하여 그려낸 ‘춘흥(春興)’은 명시로 꼽힌다. 중국·일본으로 사행차 갔을 때 지은 시에서는 호방함과 기개를 살필 수 있다. 풍류를 노래한 ‘강남곡(江南曲)’에서는 선생의 또 다른 면모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포은선생의 시세계를 대표작을 통해 살펴본다.

『포은집』권4 부록편에 보면, ‘고천에서는 한 시골선비(古川一鄉

79) “海神遺廟壓滄茫 天子時修爲降香 自是聖廟崇祀典 王魁往事也荒唐”(『포은집』 권1, 「내주해신묘(萊州海神廟)」 및 「縣官無事草生庭 城上不聞刁斗聲 父老費神來討卦 兒童下學競呼名 柳塘日暖紅鱗戲 麥隴風過翠浪生 惆悵三韓遠游客 問津還愧耦而耕」(『속공유현(宿翁檢縣)』).

80) 『포은집』 권 3, 부록, 「행정」 참조.



士)'는 이런 말을 했다. "다행히 남아 있는 한 권에 독역(讀易), 관어(觀魚), 동지(冬至) 호연(浩然)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성리학을 담은 작품이다"

### 동지를 읊다 冬至吟

#### 1

하늘의 도는 일찍이 끝없이 계속되고	乾道未嘗息
건효는 순전히 음의 기운이라네	坤爻純是陰
일양이 처음 움직인 곳에서	一陽初動處
본연의 뜻을 살필 수 있다네	可以見天心

#### 2

조화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	造化無偏氣
성인은 여전히 음기를 억제한다네	聖人猶抑陰
일양이 처음 움직인 곳에서	一陽初動處
내 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네	可以驗吾心

이 작품은 동짓날에 지은 것으로,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밝히고 있다. 첫째 작품에서는 천도가 순환 속에서 영원하며 그 운행을 타고 만물이 생생불식함을 말하고 있다. 둘째 작품에서는 성인이 양(陽)을 높이고, 음(陰)을 억제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邪)를 버리고, 정(正)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호수에 물고기를 보다 湖中觀魚

#### 1

깊은 못에 있는 듯 혹은 뛰어 오르는 듯	潛在深淵或躍如
------------------------	---------

자시는 무엇을 취해서 책에 적었을까      子思何取著于書  
 다만 장차 눈으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但將眼孔分明見  
 사물마다 활발한 물고기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物物眞成潏潏魚

2

물고기는 당연히 내가 아니고 내가 물고기 아니니      魚應非我我非魚  
 사물의 이치는 제각기 여서 본래 같지가 않다네      物理參差本不齊  
 한 권 장자의 호숫가 논설로      一卷壯生濠上論  
 지금까지 천년동안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구나      至今千載使人迷

이 작품은 중용(中庸)과 장자(莊子)의 내용을 빌어 선생의 경험주의적인 인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첫째 시에서는 중용의 말을 실제 천지만물의 활발한 생기 속에서 체험하고 체득해서 느낀 바를 말하고 있다. 둘째 시에서는 장자가 혜자와 논쟁한 인식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여기서도 선생은 다분히 경험주의적 인식세계를 보이고 있다.

포은선생은 생애의 많은 기간을 객지에서 보냈다. 선생의 작품 가운데 객지에서의 회포를 노래한 것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강남류(江南柳)'라는 작품에서 그 일면을 본다.

강남의 버드나무 江南柳

강남의 버들이여 강남의 버들이여	江南柳 江南柳
봄바람에 한든한들 황금실일세	春風도도黃金絲
강남의 버들빛은 해마다 좋은데	江南柳色年年好
강남의 나그네는 언제나 돌아갈꼬	江南行客歸何時

(이하 생략함)

포은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인 '정부원(征婦怨)'은 시종 여인네의 애절한 님두리로 전개되고 있다.

### 정부의 원한 征婦怨

한번 이별한 뒤로는 오랫동안 소식 뜸하니 一別年多消息稀  
 변방의 담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소 塞垣存沒有難知  
 오늘 아침 비로소 겨울옷을 부치는데 今朝始寄寒衣去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를 눈물로 보냈시오 泣送歸時在腹兒

회문 다 짜놓으니 비단글자 산뜻한데 織罷回文錦字新  
 먼데 계신 임께 부치려니 부탁할 데 없네 題封寄遠恨無因  
 못사람 중에 혹시나 요동손님 있나 해서 衆中恐有遼東客  
 늘 나룻머리에 나가 행인들에게 물어보오 每向津頭問路人

이 작품은 남편을 변방에 보내고 나서 유복자를 키우며, 기다림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는 아낙네의 원성을 대변한 시이다. 겨울옷을 지어서 남편에게 유복자를 보내는 아낙네의 한이 내면적인 서술의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가하면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문(回文)을 짜서 요동땅으로 보내려 안간힘을 쓰는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변방의 담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매일같이 나룻터에 나가서 행인에게 소식을 묻는다. 다른 사회시 작품에서 전장의 참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표출하고 있음에 비해, 이 시는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그로 인해 더없이 고통받는 아낙네의 절규가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 시는 포은선생의 대표작이다. 봄날의 흥취를 노래한 '춘흥'으로 자연시 계열의 작품이다. 단심가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이다.

## 봄날의 흥취 春興

봄비 기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春雨細不滴
밤이 되자 희미한 빗소리 들리네	夜中微有聲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테고	雪盡南溪漲
파릇파릇 새싹도 돌아나겠지	草芽多少生

이 작품은 첫봄의 흥취를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빗발이 너무 고와 방울지지 않은 가랑비가, 한 밤중에야 희미하게 들린다. 이어서 눈 녹아 흐르는 시냇물과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에서 약동하는 생명력을 묘사하고 있다.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력을 포착하는 의식에서 포은선생의 시적 재질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은선생은 근엄하고 강직한 유학자이며, '충절'의 표상으로 떠오른다. 그러기에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포은선생을 잘 알지 못한 채 평가한 말이다. 선생의 시품에서는 섬세함과 치밀함,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시에서는 포은 선생의 풍류객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강남곡 江南曲

강남의 아가씨 머리에 꽃을 꽂고	江南女兒花插頭
미소짓고 짝을 부르며 방주에서 노네	笑呼伴侶遊芳洲
노 저어 돌아올때 해는 기울는데	蕩棹歸來日欲暮
원앙새 짝지어 나니 근심이 끝이 없네	鴛鴦雙飛無限愁

이시에는 강남의 아가씨들이 자유분방하게 노는 모습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머리에 꽃을 꽂고 남정네를 유혹하거나, 유쾌한 물놀이 모습은 발랄하다. 그러면서도 음탕하지 않다. 바로 "즐기되 음탕

하지 않은(樂而不淫)"의 경지이다. 허균은 이 작품을 들며 "풍류가 호탕하여 천고에 빛났으며, 시 또한 악부와 거의 비슷하다"고 평하였다.

## 2.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시판(詩板)

### 개목사 원통전 시판

개목사(開目寺)는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천등산 중턱에 소재한 고찰이다. 본래는 흥국사(興國寺)로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능인대사(能仁大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능인대사가 절 뒤에 있는 천등굴에서 수도하던 중 천녀(天女)의 이적(異蹟)을 보고 도(道)를 깨우쳤으며, 이로 인해 사찰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포은선생은 한 때 이 사찰에서 독서한 바 있다. 이 때 선생이 지은 시<송이수재취부안동성기(送李秀才就赴安東書記)>가 5수 있는데, 현판의 시는 세 번째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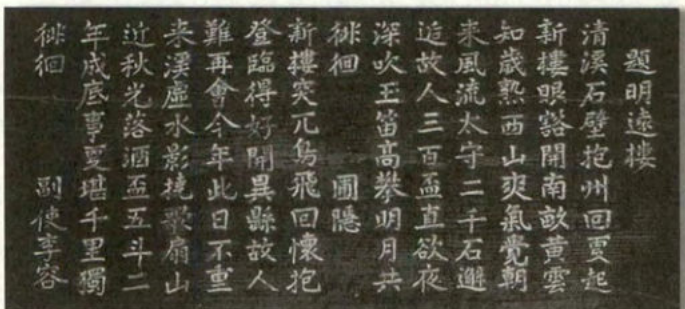
옛날에 흥국사에서 글을 읽은 적 있거니 昔日讀書興國寺

때때로 한밤중 꿈속에서 청산에 이르네      時時夜夢到青山  
 가장 생각나는 옛친구 법당 앞 늙은이여      舊交最憶堂頭老  
 나를 위해 틈내어 한번 다녀가구요      爲我乘閒一往還

이 현판은 1984년 3월에 지방의 선비인 김제병(金濟柄) 등 여러 사람이 제작하여 걸어 놓은 것이다.

### 조양각 벽상 시판

조양각(朝陽閣)은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누각으로, 명원루(明遠樓) 또는 서세루(瑞世樓)로도 불린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포은선생이 당시 이곳의 부사였던 이용(李容)고 함께 건립한 누각이다. 영남7대 누각중 하나로 영천시 지방문화재 제144로 지정되어 있다. 이 누각에는 포은선생의 시판을 비롯하여 기문 15편, 시 63편이 판각되어 걸려 있다. 여기에 걸려 있는 포은선생의 시는 <중구일제익양수이용명원루(重九日題益陽守李容明遠樓)>이다.



樓閣內 79個 懸板否 題明遠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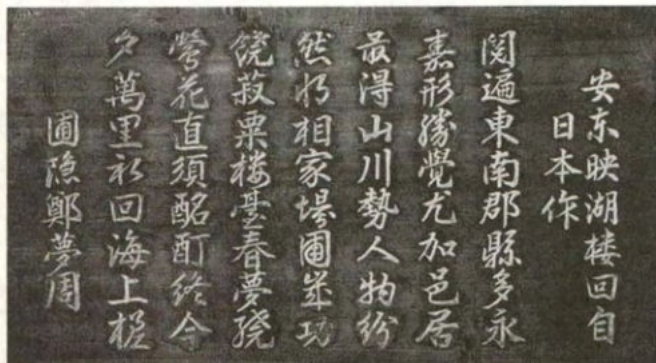
맑은 시내 돌벽이 고을을 안고 도는 곳에      清溪石壁抱州回  
 누각을 새로 세우니 시야가 훤히 트였네      更起新樓眼豁開

남쪽 밭의 누런 구름에 풍년든 것 알겠고	南畝黃雲知歲熟
서쪽 산의 상큼한 기운에 아침 된 줄 깨닫네	西山爽氣覺朝來
풍류객 이태수는 봉록이 이천석이요	風流太守二千石
기약없이 만난 친구 술이 삼백잔일세	邂逅故人三百盃
곧바로 밤이 깊어지자 옥피리 부는데	直欲夜深吹玉笛
높이 솟은 밝은 달 함께 배회하누나	高攀明月共徘徊

### 영호루 시판

영호루(映湖樓)는 경북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누각이다. 창건에 관한 문헌이 전하지 않아 자세하지 않으나, 고려 공민왕 때 창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중건되었으며, 1970년 11월에 다시 중창하였다. 누각 안에는 여러 시인묵객들의 제영이 걸려 있다. 포은선생의 시로는 <안동영호루회자일본작(安東映湖樓回自日本作)>이 걸려 있다.

映湖樓 圃隱先生 題詠詩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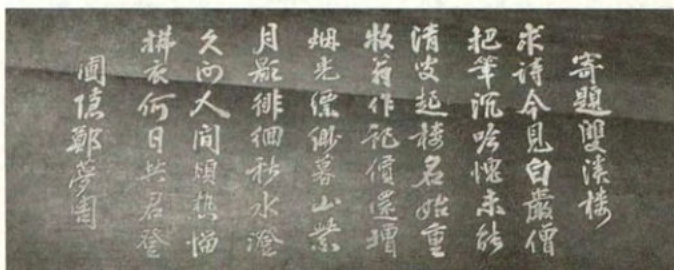
동남쪽을 두루 살피니 군현도 많지만	閩遍東南郡縣多
안동지방의 형승 더욱 아름다워라	永嘉形勝覺尤加
고을은 가장 좋은 명당에 자리하였고	邑居最得山川勢

인물도 많아 장상의 집안이 즐비하네	人物紛然將相家
농장에는 콩과 고가 넉넉히 여물었고	場圃歲功饒菽粟
누대의 봄날 꿈은 보사꽃에 싸였도다	樓臺春夢繞鶯花
곧바로 술에 취해 오늘밤을 새워야지	直須醅酌終今夕
만리밖서 이제막 배를 돌려왔으니	萬里初回海上槎

이 시는 포은선생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환한 우왕 4년(1378)7월에 지은 작품이다.

### 장성 백양사 쌍계루 시판

쌍계루(雙溪樓)는 전남 상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白羊寺) 앞에 있는 누각이다. 고려 말에 홍수로 제방과 누각이 무너져 없어지자 다시 중창하였다. 백암사(白岳寺; 백양사의 옛이름)의 스님이 간칭하여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기문을 쓰고, 포은선생이 시를 지었다. 쌍계루에 이 당시 포은선생이 지은 <기제쌍계루(寄題雙溪樓)>가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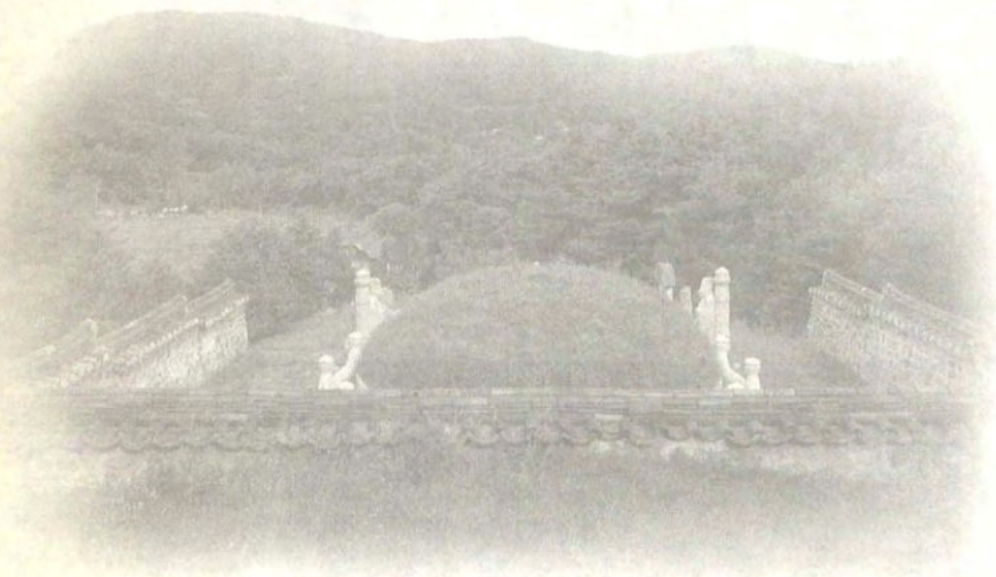
圃隱先生 寄題雙溪樓詩板

시를 요구한 백암사 스님을 지금 뵈니	求詩今見白巖僧
붓을 잡고 읊조려도 글이 안되어 부끄럽네	把筆沈吟愧未能
청수가 누각을 세워 이름이 중해지고	清叟起樓名始重



목옹이 기문을 지어 가치가 더 보태졌다네  
 노을빛이 아득하여 저문 산이 붉어지고  
 달빛이 배회하니 가을물이 맑아지는데  
 오랫동안 속세에서 부대껴 왔거니와  
 옷깃을 떨치고 언제나 그대와 올라보나

牧翁作記價還增  
 烟光縹緲暮山紫  
 月影徘徊秋水澄  
 久向人間煩熱惱  
 拂衣何日共君登



## 포은 정몽주의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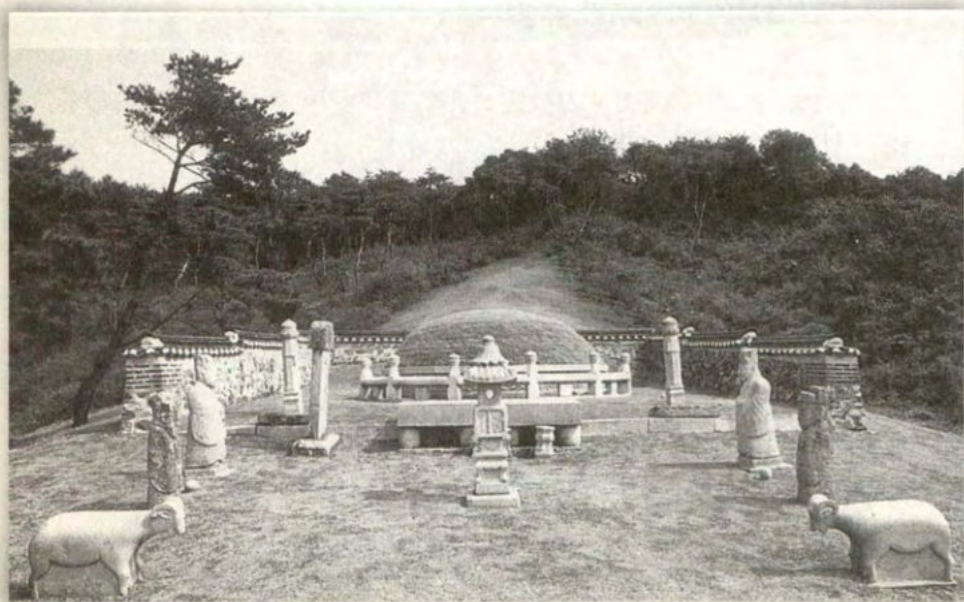
### 포은선생 묘역 (圃隱先生墓域)

포은선생의 묘역은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 3번지에 있다. 1972년 5월 4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널리 알다시피 포은은 기울어가는 고려왕조를 회생시키려다 개성 선죽교에서 희생되었다. 그때 나이 56세였다. 순절한지 9년 후에야 비로소 그의 충절과 학문이 인정되었다. 조선 태종 즉위년(1401)에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와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의 작훈을 내렸다. 태종 6년(1406) 3월에는 개성의 풍덕에 초장하였던 묘소를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였다. 본래는 포은의 면례지가 능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생전에 용인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포은의 장례를 지금의 위치에 모실 까닭이 없다. 전설에 의하면, 포은선생이 선죽교에서 피살된 직후에는 개성의 풍덕에 처음 장례를 지냈었다. 그후 신원되자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장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면례 행렬이 지금의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이르렀을 때 신이한 일이 생겼다. 앞에 내세웠던 명정이 바

람에 날려 어디론가 날라가버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례꾼들이 따라가보니 명정은 지금의 묘역에 떨어졌다. 지관을 불러 확인해보니 보기드문 명당이었다. 여러 사람들과 숙의한 끝에 포은선생의 뜻으로 알고 그곳에 장례를 모시기로 하였다. 이야말로 포은선생의 넋이 점지한 명당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로 인하여 용인지역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포은선생의 묘소를 용인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후 그의 후손들이 묘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 능원리는 연일정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포은선생의 묘소와 관련된 지명으로, 수지읍에 풍덕내가 있다. 이는 본래 「풍덕에서 오신다(豐德來)는 뜻에서 비롯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오신다」의 뜻인 「來」가 후대에 「내(川)」로 변이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 유래도 모르고 그저 풍덕천이라고 부른다.

圃隱先生墓域 全景



포은선생의 묘는 본래 원형 봉토분으로 곡담이 있었고, 석물은 게체석과 상석 2기, 묘표 1기, 문인석 2기만 있었던 단출한 분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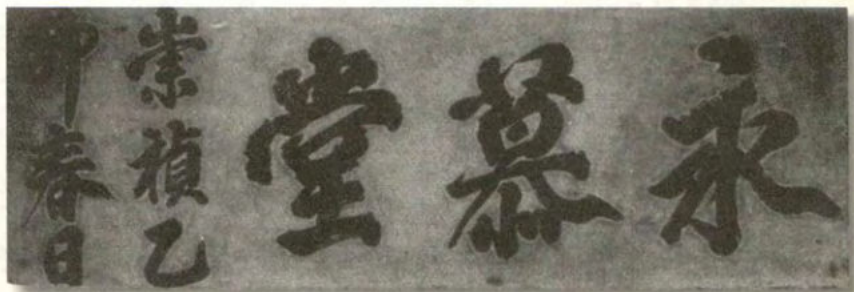
문인석은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고졸한 양식으로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복두(幞頭)에 공복(公服)을 입고 홀(笏)을 잡고 있는 형상이다. 규모는 좌측 35.5×28×135cm, 우측 35×33×145cm이다. 상석은 본래 위치에 새로 축조한 것을 놓고, 그옆에 옛것을 좌우에 배치하였다.

1972년 경기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면서 동년 12월에 상석을 교체하였으며, 1974년에는 곡담 35를 보수하였다. 또한, 봉분에 호석과 난간석을 둘렀으며 문인석, 석양(석양), 장명등을 새로 축조하여 세웠다. 1980년도에는 묘역의 민가 3채를 이전하고, 신도비각 재실 등 대대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1998년 4월에는 포은선생묘역 종합정리계획을 세워 1,2,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영모재 (永慕齋)

영모재(永慕齋)는 포은의 묘역 아래에 있다. 포은선생의 제향을 위해 건립한 재실이다. 처음에는 이곳에 포은영당(圃隱影堂)이 있었다고 한다. 영모재의 창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경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선생이 쓴「永慕堂」현액에 「崇禎乙卯春日」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숙종 1년(1675)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永慕堂懸板





永慕齋 全景

1981년 7월에 영모재를 중수하면서 19대손 정용화(鄭龍和)가 중수기를 지었는데, 이 <영모재중수기>에 의하면 영모재의 규모는 정당(正堂)이 6칸, 동서재(東西齋)가 각 2칸, 문동(門棟)이 5칸으로, 치제(致祭)에 족한 곳이라 하였다.

### 묘표 (墓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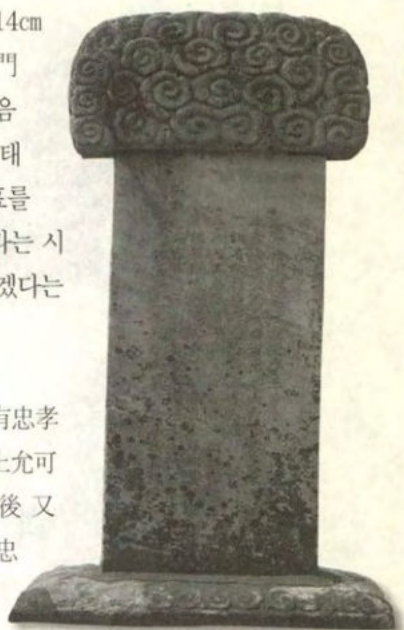
포은선생의 묘표(墓表)는 묘역 좌측에 서향으로 있다. 묘표는 조선 중종 12년(1517)에 태학생들이 포은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중종에게 청원하여 세운 것이다.<sup>81)</sup>

묘표의 형태는 관석(冠石 비신(碑身) 개석(臺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석에는 유운문(流雲紋)을 조각하였다. 규모는 관석 86×

81) 포은선생의 묘역에 남아 있는 벽돌이나 묘표 등을 고려 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이다.

28.5×47, 비신 63×16×148cm, 대석 105×59×14cm이다. 조선조에 비석을 세웠음에도 전면에 「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새겼다. 그 이유를 묘표의 음기(陰記)에서 밝히고 있다. 즉 “정덕(正德)12년에 태학생 등의 상서에 의해 문묘(文廟)에 배향하고, 묘표를 세우게 되었는데, 고려조의 벼슬을 쓰고,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쓰지 않은 이유는 공께서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正德十二年丁丑 太學生等 上言 文忠公鄭夢周有忠孝大節 理學爲東方之祖 有功於斯文甚大 請配享文廟 上允可 其年九月十七日 配享于文廟西廡 文昌侯崔致遠之後 又令修墳墓立表石 以禁樵牧 其書官擊以高麗 不書文忠公者 蓋明不事二姓之本意也 公平生事跡 俱才高麗史列傳云」



圃隱先生墓表

## 신도비 (神道碑)

포은선생의 신도비는 묘역에 이르는 마을 입구 좌측에 있다. 1980년에 건립된 신도비가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신도비의 형태는 옥개석, 비신, 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옥개석이 149×94cm, 비신 89×39.5×238cm, 대석 163×140×79cm이다. 비제(碑題)는 「高麗守門下侍中益陽郡忠義伯圃隱鄭先生神道碑銘」이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으며, 글씨는 현종 때 문신 김수증(金壽增)이 썼다. 전액은 김수항(金壽恒)이 썼다. 건립연대는 「崇禎紀元後六十九季」즉, 조선 숙종 22년(1696)이다. 이후 숙종25년(1699)에 원문에 빠진 기록을 추가하고자 권상하(權相夏)가 짓고, 김진규(金鎭圭)가 쓴 후기(後記)가 있다.<sup>82)</sup>



圃隱先生神道碑閣

포은공파종약원에서 퍼낸 사적집이나 여러 향토지에 포은선생의 신도비 건립연대를 숙종25년(1699)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퍼낸 『용인의 분묘문화』에서는 권상하의 추기 이전인 숙종22년(1696)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석의 건립연대와 비문을 지은 연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은선생의 신도비 경우도 송시열의 비문에서 빠진 것을 나중에 권상하가 보충해 적고, 이를 함께 새겨 건립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비석을 건립하고 나서 그 위에 각자(刻字)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이다.

처음에 이 비석을 세울 때 조선조에서 추증한 직함을 새겨 비를 세웠더니, 벼락이 떨어져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조의 직함을 다시 새겨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고 없이 전하고 있다.

81) 포은공파종약원에서 퍼낸 사적집이나 여러 향토지에 포은의 신도비건립연대를 숙종25년(1699)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용인대전통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퍼낸 『용인의 분묘문화』에서는 권상하의 추기 이전인 숙종22년(1696)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석의 건립연대와 비문을 지은 연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은의 신도비 경우도 송시열의 비문에서 빠진 것을 나중에 권상하가 보충해 적고, 이를 함께 새겨 건립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비석을 건립하고 나서 그 위에 각자(刻字)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이다.

## 포은 영당 (圃隱影堂)

용인지역에서 포은의 얼을 기리게 된 것은 묘소를 모신 이후부터이다. 그의 후손들이 모현면 능원리에 묘막을 짓고 거주한 이래로, 지금은 집성촌을 이루었다. 동리명칭도 그 이전에는 쇠포천이었다. 포은의 묘소를 모신 뒤에 바로 모현촌으로 지명도 바뀌었다. 묘소 부근의 묘막은 지금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로 바뀌었다.

모현 능원리 내곡에는 포은 종가가 있으며, 여기에는 가묘(家廟)인 포은영당(圃隱影堂)이 있다. 포은영당은 숙종 5년(1679)에 민정중의 청원으로 임금이 직접 필요한 건축자재를 하사하여 짓게한

圃隱影堂



건물이다.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영당안에는 영정삼실 위패 영정 3점이 있다. 그리고 포은이 생전에 왕래한 서간과 친필이 수록된 『古簡集』과 숙종의 어제어필로 된 추모시첩도 보관되어 있다. 아울러 숙종의 추모시는 3장의 목판에 판각하여 현판으로 걸어 놓았다. 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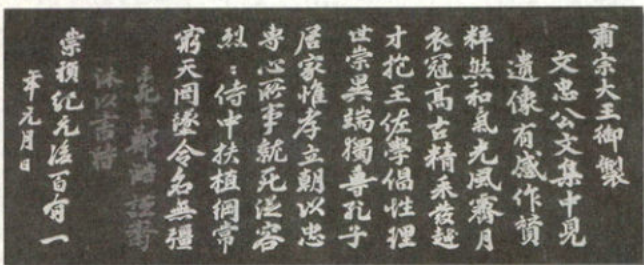


## 포은영당내 추모시판

숙종대왕어제 肅宗大王御製

문충공의 문집에서 유상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지은 찬

粹然和氣光風霽月 순수한 화기는 광풍제월 그것ियो  
 衣冠高古精采發越 의관은 고고하여 정채 특이하도다  
 才抱王佐學倡性理 왕을 돕는 재주 있고 성리학을 창도하여  
 世崇異端獨尊孔子 이단 숭상하는 때에 홀로 공자 높이고  
 居家惟孝立朝以忠 집에서는 효도하고 조정에선 충성하며  
 專心所事就死從容 섬기는 바에 전심하다 조용히 돌아갔네  
 熱烈侍中扶植綱常 열렬하신 시중은 강상 부식하였으니  
 窮天罔墜令名無彊 길이 쇠퇴하지 않고 영명이 무궁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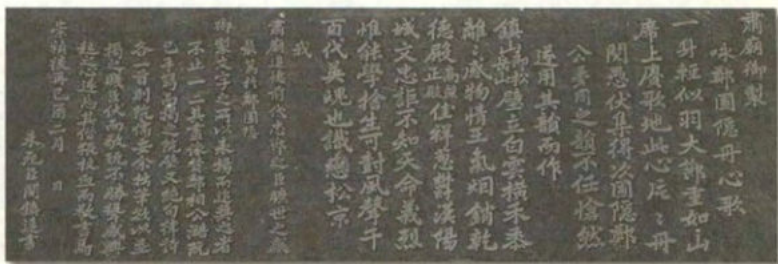
肅宗大王御製 懸板

정포은의 단심가를 읊어 詠鄭圃隱丹心歌

一身輕似羽 일신은 깃털처럼 가벼이 보고  
 大節重如山 대절만을 산처럼 중시하였네  
 席上 歌地 노래에 화답하던 그 자리에선  
 此心片片月 그 마음 조각마다 붉었으리라.

우복집(愚伏集)을 보다가 “포은 정공 몽주의 운을 차하여” 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못 견디게 상심되어 드디어 그 운으로 지었다.

鎮山壁立白雲橫	진산 높이 솟은 곳에 흰 구름이 비끼고
禾黍離離感物情	곡식 무르익은 데에 감상이 이는도다
王氣烟銷乾德殿	왕기는 건덕전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佳祥蔥鬱漢陽城	아름다운 상서는 한양성에 울창한데
文忠諫不知天命	문충공이 천명을 어찌 몰랐으리마는
義烈惟能學捨生	의열은 능히 목숨 버릴 줄 알았도다
可樹風聲千百代	풍성을 천백대에 세울 만하거니와
英魂也識戀松京	영혼 또한 송경을 그리워하리로다



肅廟御筆 懸板

숙묘어필 肅廟御筆

정포은 鄭圃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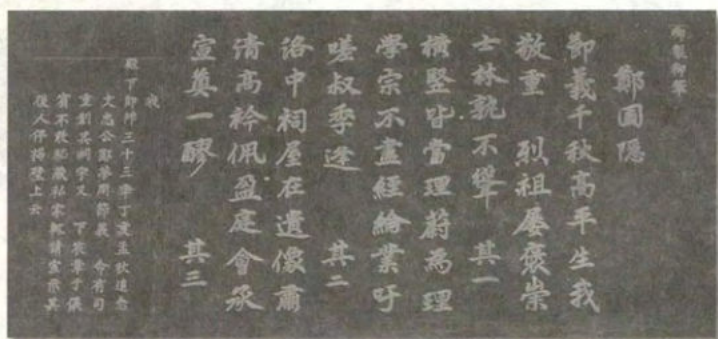
節義千秋高	절의가 천추에 높으니
平生我敬重	평생에 내가 존중하도다
烈祖屢褒崇	열조께서 여러번 포승하셨거니와
士林孰不聳	사림의 누구인들 높이지 않으리요

## 그 둘째

橫堅皆當理 횡설수설 모두가 이치 맞으니  
蔚爲理學宗 울연하게 이학의 종주 되도다  
不盡經綸業 경륜하는 사업을 못 다했거니  
吁嗟叔季達 슬프게도 말세를 만남이로다

## 그 세째

洛中祠屋在 송경에 사당이 있어  
遺像肅清高 유상이 엄숙하고 맑고 높으니  
衿佩盈庭會 금패가 뜰에 가득 모이는 때에  
承宣奠一醪 승선시켜 한 잔을 올리는도다



肅廟御製御筆 懸板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3년 정해(丁亥:1707) 맹추(孟秋:7월)에 문충공 정몽주의 도덕과 절의를 추념하여 유사에 명하여 그 사당을 증창하게 하셨다. 또 의빈(儀賓)에게 신장(宸章)을 내리셨는데, 감히 사가에 비장할 수 없으므로, 후인에게 선시(宣示)할 것을 곧 청하여, 벽에 걸게 하였다.

## 하마비(下馬碑), 단심가비(丹心歌碑)

번 대로에서 포은선생의 묘역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영모교(永慕橋)가 있으며, 영모교 옆에 하마비(下馬碑)와 단심가비(丹心歌碑)가 세워져 있다.



## 충렬서원(忠烈書院)

포은의 종가 가까이에는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충렬서원이 있다. 지금도 서원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내외삼문을 비롯하여 강당, 사우 등 서원의 필수적인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충렬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죽전서원(竹田書院)에서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과 함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이어



下馬碑

丹心歌碑

왔다. 조선 선조 9년(1576) 이계(李檠) 이지(李贄)를 비롯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몽주(鄭夢周)와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처음에는 이 서원을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지금의 죽전리에 세웠었다. 서원 이름도 「죽전서원」이었다.

임진왜란때 서원 건물이 회진되어 선조 38년(1605)에 이정구(李廷龜)가 경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현감 정종선(鄭從善), 이시윤(李時尹) 등과 함께 논의하여 정몽주의 묘소 아래에 중건하였다. 3년여의 공사 끝에 사우 3칸, 동 서재 각 2칸, 문루(門樓) 3칸을 지었다. 문루 윗층은 강당이며, 아래는 문주방(門廚房)과 고사(庫舍) 등을 갖추었다. 이 때 조광조의 위패는 심곡서원(深谷書院)으로 옮겨 배향하였다. 중창과 함께 「충렬(忠烈)」이라 사액되었으며, 설곡(雪谷) 정보(鄭保)와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을 추가 배향하였다. 숙종 32년(1706)에 다시 후손 정제두(鄭齊斗) 정찬조(鄭纘祖)를 비롯한 여러 유림의 공의로 옛터 서쪽 가까운 곳에 이건하였다. 그 후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忠烈書院 懸板



1911년에 유림에서 사우(祠宇)를 중건하였고, 1956년에 강당을 복원하였으며, 1972년 전체를 보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6칸의 사우, 내신문(內神門) 외신문(外神門), 동서 협문(夾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된 8칸의 강당 등이 있다. 현재 사우의 규모는 13.45평이며, 강당은 11.2평이다. 서원 입구에는 홍살문을 세워 신성시하였다. 사우에는 정몽주를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정보와 이시직의 위패를 배향하였다.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강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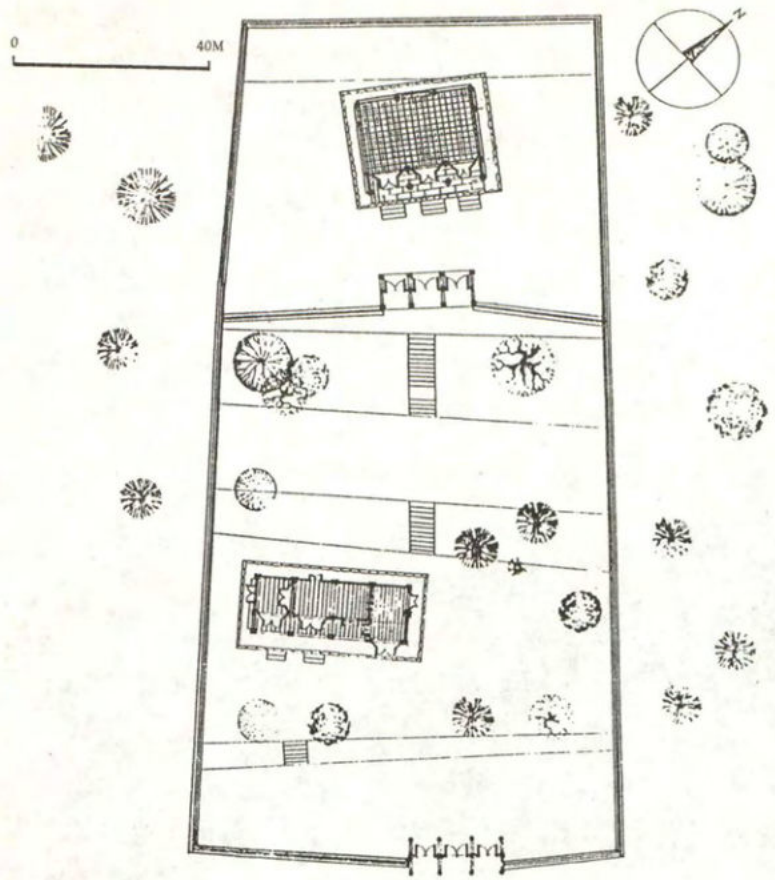
충렬서원의 건물구조는 단순한 모습을 띠고 있다. 경사지에 사당과 강당을 중심으로 재실이나 장경각, 교직사 등이 배제된 변형된 구조이다. 18세기 이후 서원이 제향 중심의 시설로 바뀌면서 교육공간이 무의미해지고, 강당 역시 교육공간보다는 제향시에 모임 장소로 기능이 변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충렬서원은 일정한 중심 축이 없어 외삼문에 들어서면 강당과 사당이 동시에 보인다. 한때 용인의 대학자 도암(陶巖) 이재(李穡) 선생이 여러 유림과 학문을 교류하던 곳이기도 하나, 그 이후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 서원은 1972년 5월 4일자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9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3월 중정(中丁)과 9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5변(籩) 5두(豆)이다.

忠烈書院 全景



### 충렬서원 평면도



충렬서원 평면도

충렬서원에 전하는 중요유물로는 포은유간집(圃隱遺簡集), 영정(影禎), 숙종어제어필첩(肅宗御製御筆帖), 충렬서원중수기(忠烈書院重修記), 충렬서원선생안(忠烈書院先生案), 도기(到記) 등이 전한다.

<참고> 典故大方, 太學志, 書院謄錄, 圃隱先生集, 京畿道史(京畿道, 1982),

## 포은선생을 제향하는 전국의 서원·사우

서원명	소재지	사우명	소재지
임고서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삼강서원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송양서원	경기 개성	구강서원	경남 울산시 반구동 서원말
충렬서원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용암서원	전남 남원시 운봉면 용암촌
반계서원	경남 울산시 언양면 대곡리	삼은각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오천서원	경북 포항시 오천읍 원동	전충사	강원 강릉시 저동 경포대
옥산서원	경남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병천사	광주시 서구 금호동
화동서원	강원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경현사	경북 구미시 옥관동 옥관리
도남서원	경북 상주시 도남동	화암사	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덕암서원	전북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대성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호산서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양강영당	전남 장흥군 장평면 등촌리
기동서원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수산서당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충현서원	경기 용인시 기흥읍 민속	일원정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두곡서원	전북 금제군 진봉면 심포리		

\* 삼강서원, 구강서원, 용암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된 채 복원되지 못하였다.

## 포은선생 영정

포은선생의 영정은 공양왕 즉위년(1389)에 좌명공신(佐命功臣)에 녹봉되어 입각 봉안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모(移模)를 거쳐 현재 가묘(家廟)와 충렬서원, 임고서원, 양강영당, 송양서원 등에 봉안되어 있다. 국립박물관과 서울대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임고본 포은선생 영정  
포은선생 세부도

조선 명종 10년(1555)에 가묘본을 이모하여 영천의 임고서원에 봉안했던 초상(좌측 상단에 嘉靖□□阜本이란 명문이 있다.)



포은선생 초상(전신도)

『포은문집(圃隱文集)』 「화상편(畫像編)」에 의하면 선생의 초상화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좌명공신(左命功臣)에 녹봉되어 입각 봉안(立閣奉安)된 때의 공신도상(功臣圖像)이라고 한다. 조선 명종 10년(1555)에는 가묘의 영당에 인각(麟閣)된 초상 1분을 이모(移摸)하여 영천(永川)의 임고서원(林臯書院)에 봉안했으며, 선조 8년(1575)에도 가묘본을 이모하여 개성의 송양서원(松陽書院)에 봉안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선생의 초상은 3본이 전하고 있었으나, 임진왜란 중 소실되어 임고서원본만 남았다. 그후 광해군 11년(1619)에 박경신(朴慶新)이 화사(畫師) 권응

(權應)에게 임고서원본 하나를 이모케 하고, 이듬해 봉사손(奉祀孫) 준(僞)이 가묘에 봉안했다. 임진왜란 이전 본으로 유일하게 전하던 임고서원본 역시 훼손되자 인조 7년(1629) 화사 김육(金堉)에게 이모토록하여 신본을 봉안하고, 구본(舊本)은 궤(櫃)에 넣어 보관하다가 효종 5년(1654), 후손 간(侃)이 충렬서원으로 이봉(移奉)하였다.

그후 숙종 3년(1677) 화사 한시각(韓時覺)으로 하여금 다시 가묘본 3본을 이모케하여 가묘의 영당, 충렬서원, 숭양서원에 각기 봉안했다. 한시각이 전사(傳寫)한 이모본도 얼마 안가서 멸실되었으므로 다시 이모를 착수하였는데, 충렬서원에서는 영조 27년(1751) 화사 장경주(長景周)가, 숭양서원에서는 영조 44년(1768) 화사 한종유(韓宗裕)에 의하여, 이듬해 영조 45년에는 가묘에서 한종유로 하여금 전사케 하여 각기 봉안했다. 「가정□□고본(嘉靖□□阜本)」즉, 고려 명종10년(1555) 을묘본(乙卯本)은 조선 고종(高宗) 신미년(辛未年; 1906)에 철향(撤享) 후 가묘에 궤장(櫃藏)하여 전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소장본은 1880년에 이한철(李漢喆)이 숭양서원본을 이모한 것으로 반신상(半身像)이다. 지본색채(紙本色彩)로 규격은 35×61cm이다.



陽岡影堂에 奉安된 影幀



鄭夢周像 (1880년 李漢喆重模 지본채색 61x35.2) 국립중앙박물관

포은선생 영정 이모본안(移模奉安) 일람표

연도	자 료 명	화 사	이 모 처	봉 안 처	비 고
1390	인각본	未詳	기린각	가묘	功臣像
1555	을묘본	未詳	인각본	임고서원	功臣像
1575	(을해본)	未詳	인각본	송양서원	인각본 모사
1619	(기미본) 을묘본 모사	권응	임고서원	가묘	임진왜란 소실
1629	기사본	김식	임고서원	임고서원	임진왜란 소실
1677	(정사본) 을묘본 모사	한시각	가묘	삼본각, 가묘충렬서원, 송양서원	
1751	(신미본) 을묘본 모사	장경주	충렬서원	충렬서원	
1768	국립박물관본	한종유	송양서원	송양서원	
1880	(신해본) 기사본 모사	이한철	송양서원	국립박물관	
1911	(무인본) 기사본 모사	김광현	임고서원	임고서원	영당준공
1938	서울대소장본	한유동	임고서원	임고서원	
19세기		未詳		서울대박물관	
19세기		김은호		未詳	書畫百年소개

### 충렬서원 영당에 봉안된 영정

충렬서원(忠烈書院) 영당(影堂)에 봉안된 영정은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로 고려말엽의 복제(服制)인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청포단령(靑袍團領)을 입은 좌안팔분상(左顔八分像)이다. 양손을 소매 속에서 맞잡은 위로 금박(金箔)의 각대(角帶)가 있고, 단령(團領) 사이로 첩의(帖衣)가 나타나고 있다. 비록 중모본(重摸本) 이기는 하나, 고려말엽의 화격(畫格)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990년 11월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되었다. 견본설채(絹本設彩)한 것으로 규모는 화폭 236×111cm이다.



忠烈書院 奉安 影幀

### 포은선생시문집 (圃隱先生詩文集)

포은선생의 시문집은 조선 세종 21년(1439)에 초간한 이래 무려 12차례나 중간(重刊)되었으며, 1984년에는 포천공파종약원에서

국역본을 간행하였다.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외에 『포은시고(圃隱詩稿)』 『성인록(成仁錄)』 등도 전하고 있다.

###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

#### 1) 초간본

포은선생의 아들 종성(宗誠)과 종본(宗本)이 수집한 유고(遺稿)를 세종21년(1439)에 보문각직제학 권채(權採)에게 명하여 간행한 판본. 시문 303수가 수록되었다. 변계량(卞季良), 하륜(河倫), 박신(朴信)의 서문과 아들 종성의 발문이 있다.

#### 2) 신계본(新溪本)

중종28년(1533)에 5세손 세신(世臣)이 신계(지금의 김제) 군수로 재임시 초간본 연보에 추가하여 개간한 판본

#### 3) 개성구각본(開城舊刻本)

선조 초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신계본보다 시 3수가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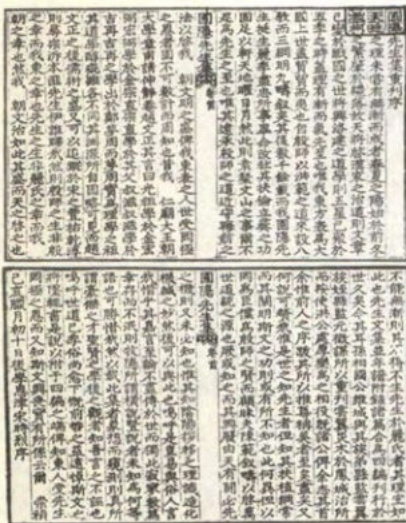
圃隱先生集

#### 4) 교서관본(校書館本)

선조 중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교서관에서 주조한 갑인자(甲寅字)로 조판한 것이다.

#### 5) 영천초각본(永川初刻本)

선조 17년(1584)에 윤각(芸閣)에 명하여 간행하려 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하고, 다음해 7월에 영천 임고서원에서 간행한 개찬본(改撰本). 유성룡(柳成龍)이 초간본, 개성구각본, 교서관본 등을 교감하여 4권으로 편차를 정하였는데, 시는 구분대로 1,2권으로 구성하고, 3권에는 구분 외에 추가된 자료를 모아



습유(拾遺)를 첨가하였으며, 4권에는 유성룡이 지은 연보고이(年譜攷異), 본전(本傳), 행장(行狀), 제가기술(諸家記述), 제문(祭文) 등을 수록하였다. 유성룡의 발문과 노수신(盧守愼)의 서문이 있다.

#### 6) 영천구각본(永川舊刻本)

임진왜란으로 영천초각본이 소실되자 선조40년(1607)에 영천 군수 황여일(黃汝一)이 임고서원 유생들과 함께 경상감사 유영순(柳永詢)의 후원으로 간행한 판본. 이 판본은 영천과 경주에서 분담하여 제작하였다. 이 판본에 처음으로 포은선생의 화상(畫像)과 필적을 모각(模刻)하여 첨가하였고, 제문 2편을 추가하였다. 조호익(曹好益)의 발문이 있다.

#### 7) 봉화각본(奉化刻本)

효종11년(1660)에 정운익(鄭雲益)이 봉화현감으로 재임시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의 협조를 얻어 개간한 판본. 영천구각본의 <연보고이> 말미와 제축문 약간을 첨가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중간서문이 있다.

#### 8) 영천재각본(永川再刻本)

숙종3년(1677) 영천에서 재각한 판본. 영천구각본에다 봉화각본의 보속조(補續條)를 첨부하고, 뒤에 얻은 제가의 기술을 신증부록(新增附錄)으로 수록하였다. 기존의 4권을 9권으로 분권하였다.

#### 9) 개성재각본(開城再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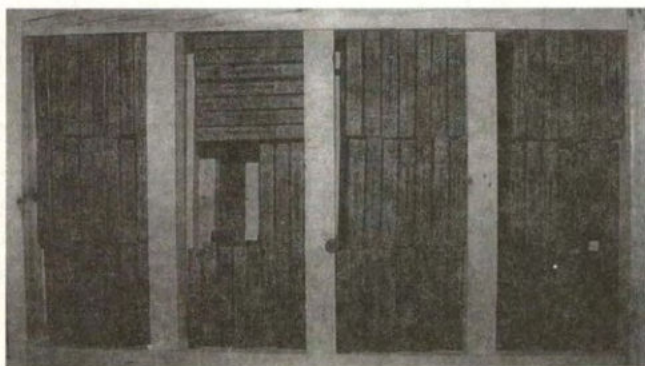
숙종45년(1719)에 후손 찬휘(繼輝)가 봉화각본에 3권을 추가하여 편찬한 것으로 당시에 간행되지 못하고, 영조45년(1769)에 송양서원에서 간행하였다. 시문을 추가로 수습하여 속습유(續拾遺)에 넣고, 포은선생에 관한 여러 기록을 점출하여 주자기보통편(朱子紀譜通編)의 사례에 따라 편찬하였다.

## 10) 개성신본(開城新本): 송양본(崧陽本)

고종 광무 4년(1900) 후손 환익(煥翼) 등이 간행한 판본. 개성본을 주로하고, 영천구각본에서 보충한 것이다. 개성재각본 후에 수습한 자료는 「新增」 두 글자를 써서 표기하였다. 송병선(宋秉璿)의 발문이 있다.

## 11) 옥산재본(玉山齋本)

고종40년(1903) 진주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옥산재에서 간행한 판본, 영천초각본을 주로하여 유형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옥산서원에 480매의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玉山書院所藏 圍隱集 板閣

## 12) 대전본(大田本)

1961년 후손들이 모여 종무원의 공의로 간행한 판본. 개성본을 주로하여 간행한 것으로, 시문과 부록 약간을 국역하여 편말에 수록하였다.

## 13) 국역본 1984년

포은공과종약원의 사업으로 대전본을 저본으로하여 국역한 판본. 원본과 역본 2권으로 대전 회성사에서 인쇄하였다.

### 포은시고 (圃隱詩稿)

포은시고(圃隱詩稿)는 산하 2권으로 부산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종21년(1439)에 포은선생의 아들 종성이 수집한 시문을 편차하여 간행한 초간본을 복각(覆刻)한 것이다. 영천초각본(1584)보다 앞서 간행된 주자본(鑄字本)으로 중종연간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성인록 (成人錄)

조선 선조14년(1581) 윤두수(尹斗壽)가 편찬한 것으로 1책이다. 송나라 문천상(文天祥)과 포은 선생의 사적을 수록한 것으로, 포은선생의 초상과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 포은선생유묵 (圃隱先生遺墨)

포은선생의 유묵은 현재 전하는 것이 많지 않다. 포은공파 종약원에서 발간한 『포은정몽주선생사적집』에 게재된 필적은 모두 7편이다. 호암미술관, 서울대박물관, 경남대박물관 등에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근묵(槿墨), 도남서원지(道南書院誌), 포은공파족보(辛西譜, 1981간행), 성인록(成人錄) 등에도 소개되어 있다. 필자가 1986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은영당에 고간첩(古簡帖)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사적집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 경남대 소장 유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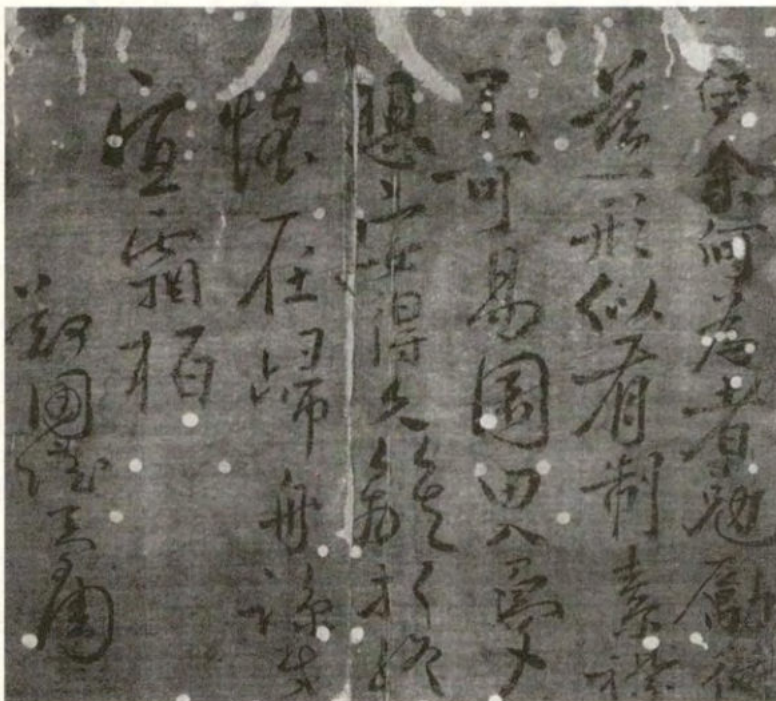
이 자료는 『명현간도(名賢簡牘)』12권 중 제1권에 소재한 것이



慶南大學校 所藏 日本 寺  
內文庫 各賢簡牘 第1卷 高  
麗詩人 18名 目錄中 鄭夢  
周 書簡

伊余何爲者  
勉勵從茲役  
一形似有制  
素禮不可易  
安得久離析  
終懷在歸舟  
讓哉宣霜栢

다. 이 책에는 신라 때 명필 김생(金生)을 비롯하여 17명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 데라우치 문고(寺內文庫)에 소장되었던 자료인데, 1996년도에 경남대학교에서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도연명(陶淵明)의 <을사년 3월 건위참군사도로 있을 때 전계를 지나며 (乙巳歲三月爲建威參軍使都經錢溪)>라는 시를 쓴 것으로 시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 『근묵(槿墨)』 소재 유묵

이 자료는 성균관대박물관에 소장된 『근묵(槿墨)』에 소재한 것이다. 행서체로 쓴 서간으로 규격은 22.5×27cm이다. 7월 21일에 쓴 서간이다.

遺墨

七月廿一日忽奉

佳章施之吾三乃知

超然於物外者其出語亦無洒然非俗人之語可及

也驪江我所居也亦

先生之所知不審

先生之先考著菴也南望不遠為之慨然况世

間新事歲異而月不而矣近聞若坐席而幸

令官門欲與陶隱正馬注丹果得如引川寧

當作一夜話也歲受新米之

惠敢不感感僕面有患痢疾將卒曰矣比來小

奚幸并

照及作在途故時秋涼

千忘珍書此

鄭一鸞著

『근목(槿墨)』 소재 유묵

도남서원지(道南書院誌) 소재 유묵

予及五濁多也印在

劫心何處巨三三意

毋勞家僕來今月十九日批送孫卷之

桂字深似石何日夜石如唯

先生起

登此志浩矣

萬三三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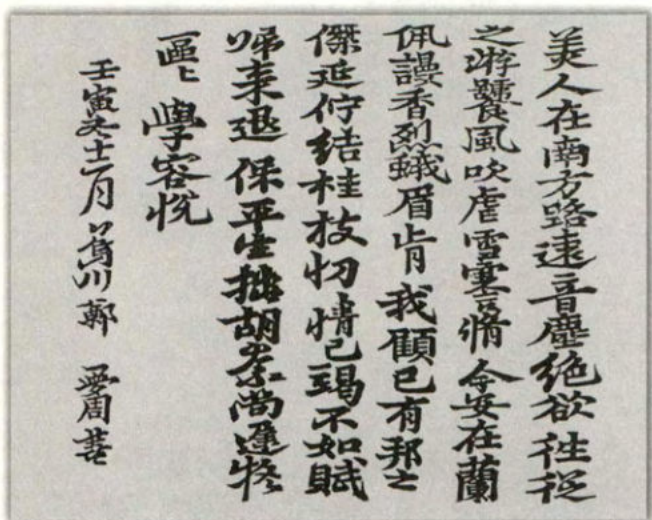
鄭一鸞

十月廿四

도남서원지(道南書院誌) 소재 유묵

## 신유보(辛酉譜, 1981간행) 소재 유묵

이 자료는「壬寅冬十一月」즉 1362년 11월에 지은 시구이다. 1981년도 포은공파족보 편찬시 이 자료를 수록하였다. 포은선생의 유묵 가운데 비교적 널리 소개된 자료이다.



신유보(辛酉譜, 1981간행)  
소재 유묵

## 『한국역대명인필적』 소재 유묵

이 자료는 『한국역대명인필적』에 수록되어 있다. 포은선생의 유묵 가운데 비교적 널리 소개된 자료이다. 이 책에는 2편의 포은선생 유묵이 수록되어 있는데, 출처는 성인록(成人錄)으로 되어 있다. 포은 종약원에 펴낸 사적집에는 1편만 소개되어 있다. 사적집에 수록된 유묵은 1362년 8월 5일에 쓴 서간이다. 다른 1편은「壬寅冬十一月」에 쓴 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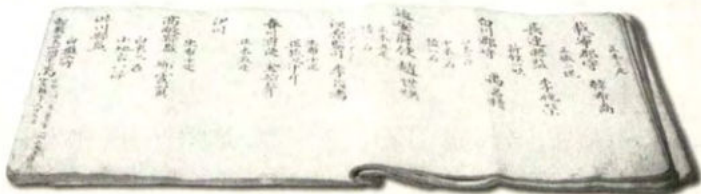
포은영당 소장 고간첩(古簡帖)



肅廟御製筆帖 古簡帖

충렬서원중수록(忠烈書院重修錄)

충렬서원중수록(忠烈書院重修錄)은 책명에서 시사하듯이, 모현면 능원리에 소재한 충렬서원을 중수하던 당시의 제반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忠烈書院重修錄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수기 표지, 중수기 년기(重修記年記), 원장(院長), 품계별 유사록(品階別有事錄), 경유사유, 전곡유사, 헌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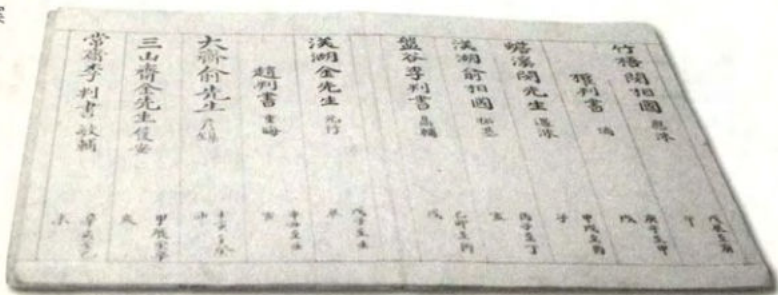
(1).헌납기(2).물종기.목단잡화질.산림목청구질.보군질.총계.강당기(講堂記).사우기(祠宇記).중건기(重建記).화상기(畫像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92년 10월 12일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26호로 지정되었다. 견본설채(絹本設彩)한 것으로 규모는 화폭 236×111cm이다.

### 충렬서원선생안 (忠烈書院先生案)

이 책 이름에서 시사하듯이, 충렬서원(忠烈書院)의 역대 선생(원장)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수필본(手筆本)이다. 24.5cm×34cm 크기의 저지(楮紙)를 5첩(帖) 하였으며, 각 면마다 5행(行)의 적선(赤線)을 넣어 행간을 구별하고, 역대 선생의 호(號)와 직함·성명·보임기간 등을 기록해 두었다. 표지에는 「忠烈書院」만 적혀있다.

忠烈書院先生案



이 자료는 총 5첩(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첩에는 충렬서원이 초창되었을 때인 선조 9년(1576)부터 새로 중건하기 시작한 병오년(丙午年;1666) 다음해인 승정(崇禎) 기원후 40년 정미(丁未;1667) 이전까지의 역대 선생에 관련한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2첩에는 근천(近川) 홍명하(洪命夏)에 이르기까지 상신(相臣) 9명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부터

는 재직기간 년기(年記)까지 기록되어 있다. 3첩과 4첩에도 역대 선생들의 이름자와 직함이 기록되어 있다. 5첩에는 이경재가 임자년(壬子年; 1852)까지 원장직을 맡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부터 12년 후인 1864년의 대원군 섭정이후 일시 궤철을 겪으면서 선생안의 기록도 끝나쳐져 있다. 1992년 10월 12일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27호로 지정되었다. 견본설채(絹本設彩)한 것으로 규모는 24.5cm×34cm, 5帖이다.

## 포은선생 동상 · 시가비 · 유적비

포은선생의 유적은 탄생지인 영천, 성장지인 오천, 연일과 묘역이 있는 용인시 외에 전국 각지에 서원, 유적비, 동상, 시조비 등 여러 형태로 산재해 있다. 연원이 깊은 주요 유적만 정리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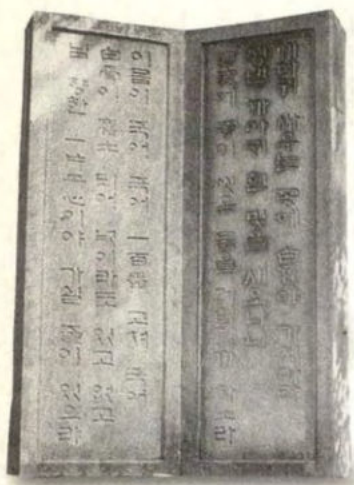
### 포은선생동상

포은선생의 동상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쪽 녹지대에 있다. 1970년 10월 16일에 정주영의 헌납으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함께 건립한 것이다. 김경승이 조각하고, 이승녕이 글을 지었으며, 글씨는 서희한이 썼다.

### 포은선생추모시가비

추모시가비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삼청공원내에 있다. 1974년 6월 19일 한국일보사가 창간 2주년기념으로 건립한 것이다. 글씨는 김충현이 쓰고, 김정숙이





포은선생 추모시가비

만들었다. 두 쪽 병풍을 펼쳐 세운 형태로 좌측에는 포은선생의 단심가를, 우측에는 모친 이씨부인의 백로가를 새겼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白鷺야 가지마라  
성년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滄波에 종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몸이 죽어 죽어 一白幡 고쳐 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낮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 포은선생유적비

포은선생의 유적비는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가마못공원내에 있다. 본래 상봉동 888의 6번지 진주에서 합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을 1985년 6월에 이전하였다. 이때 거북모양의 받침돌이 훼손되어 새것으로 바꿨으며, 옛날의 대석에는 비의 이건(移建) 사실을 기록하여 없어 놓았다. 이 비석은 1922년에 진주의 유림이 주관하여 세운 것으로, 하겸진(河謙鎭)이 글을 짓고, 강수환이 글씨를 썼다. ㉠



圃隱先生 遺墟碑





- 1364 丁巳 28세 \* 여진족을 격파하고 돌아와 朝奉郎 典寶都監 判官에 제수  
공민 13년 (2월)  
\* 왕으로부터 紫金魚帶를 하사 받음
- 1365 己未 29세 \* 典農寺丞으로 전직  
공민 14년 \* 모친상을 당함(정월)  
왕명으로 '효자리'라 봉하고 정문을 세움
- 1367 庚申 31세 \* 예조정랑 겸 성균박사에 제수  
공민 16년
- 1368 辛酉 32세 \* 봉선대부 성균사에 지제교에 제수  
공민 17년
- 1371 辛酉 35세 \* 중의대부 태상소경 보문각응교 겸 성균관 직장에 제수  
공민 20년 \* 中正大夫 성균사성에 제수(12월)
- 1372 壬戌 36세 \*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서촉평정 축하사절로 감  
공민 21년
- 1373 癸亥 37세 \* 명나라에서 귀국함(7월)  
공민 22년
- 1374 甲子 38세 \* 경상도 안렴사로 파견됨  
공민 23년
- 1375 乙丑 39세 \* 우사의대부 예문관 직제학, 춘추관 수찬,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  
우왕 원년 \* 北元使臣 영입반대상소 올림  
\* 간관이 친원과 이인임을 탄핵하려 한 사건에 연루되어 언양  
으로 유배됨
- 1376 丙寅 41세 \* 유배에서 풀려나 개경으로 돌아옴(3월)  
우왕 3년 \* 일본에 사신으로가서 교린관계를 체결(9월)
- 1378 丁卯 42세 \* 일본에서 귀국함(7월)  
우왕 4년 \* 正順大夫 右散騎常侍 보문각 제학에 제수

- 1379 壬戌 43세 \* 봉익대부 공공판서 진현관 제학에 제수(4월)  
 우왕 5년 \* 예의판서 예문관 제학에 제수(5월)  
 \* 전법판서 진현관 제학에 제수(10월)
- 1380 癸亥 44세 \* 판도판서에 제수(3월)  
 우왕 6년 \* 조전원수로 전라도 운봉에서 왜구 격퇴  
 \* 밀직제학 상의회의도감사 보문각제학 상호군에 제수
- 1381 甲子 45세 \* 성근익찬공신 봉익대부 밀직부사 상의회의도감사 보문각제  
 우왕 7년 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에 제수
- 1382 乙丑 46세 \* 足金銀進貢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되돌  
 우왕 8년 아옴(4월)  
 \* 請諭使로 명나라에 감(11월)
- 1383 丙寅 47세 \* 요동에서 예물만 전하고 되돌아옴(정월)  
 우왕 9년 \* 조전원수로 동북면 정벌에 참전(8월)
- 1384 丁卯 48세 \* 광정대부 정당문학에 제수(7월)  
 우왕 10년 \*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
- 1385 壬戌 49세 \* 명나라에서 귀국후 同知眞擧가 됨  
 우왕 11년
- 1386 癸亥 50세 \*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2월)  
 우왕 12년 \* 왕이 의대와 안마를 하사하고 門下評理에 제수
- 1387 甲子 51세 \* 사직을 청하여 허가되고 永原君에 봉작됨  
 우왕 13년 \* 복식을 명나라 제도로 정착시킴(6월)  
 \* 명나라에 조빙을 청함(12월)
- 1388 乙丑 52세 \* 명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고 용도에서 되돌아옴(정월)  
 우왕 14년 \* 삼사좌사에 제수  
 \* 사전제도 폐지  
 \* 문하찬성사 지서연사에 제수

- 1389 丙寅 53세 \* 예문관 대제학에 제수(6월)  
우왕 7년 \* 문하찬성사에 제수(11월)
- 1390 丁卯 54세 \* 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에 책훈되고, 중대광 문하찬성사 동관  
공양 2년 도평의사사 관호조상서시사 진현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영서운관사 익양군 충의군에 봉해짐(8월)  
\* 벽상삼한 삼중대광 수문하시중 관도평의사사 병조상서시사  
영경영전사 우문관대제학 익양군 충의백에 봉해짐(11월)
- 1391 壬戌 55세 \* 人物推辨都監 提調官이 됨(11월)  
공양 3년 \* 安社功臣에 책훈됨(12월)
- 1392 癸亥 56세 \* 대명물에 의거 법령을 정비할 것을 상소(2월)  
공양 4년 \*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자객에 의해 타살됨(4월 4일)

## 조선

- 1401 乙丑 \* 大匡輔國 崇祿大夫 領議政府事 修文館大提學 兼 藝文 春秋館  
태종 원년 事 益陽府院君에 추증, 文忠이라 증시함
- 1406 丙寅 \* 海豊郡(豊德)에 안장된 시신을 지금의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태종 6년 에 천묘하고, 부인 이씨를 '敬順宅主慶州李氏'로 봉하여 합장함

\* 연보는 연일정씨포은공파 종약원에서 펴낸 『포은정몽주선생 사적집』에서 발췌하여 정리  
한 것임 ●

## 참고 문헌

## 〈자료〉

圃隱集, 三峰集, 栗谷全書,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圃隱鄭夢周先生事蹟集,

## 〈논거〉

- 김상기(1985),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 출판부.  
 하현강(1974), 「鄭夢周 - 一片丹心の意志」 『高麗·朝鮮初期의 學者 9인』, 신구문화사.  
 朴武成(1979), 「鄭夢周 - 善竹의 一片丹心」, 『歷代人物韓國史』 3, 신화출판사  
 김상기(1988), 「정몽주」 『朝鮮名人傳』, 조선일보사  
 이이화(1993), 「정몽주와 정도전 - 권력이 갈라놓은 적과 동지」 『이야기 인물한국사』  
     5 -역사상의 라이벌과 동반자-, 한길사.  
 권정안(1996), 「포은 정몽주」, 『한국인물유학사』 한길사.  
 금장태(1997), 「정몽주와 사립과 형성기의 성리학」 『조선 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출판부.  
 신천식(1998), 「정몽주의 학문과 교육사상」 『고려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사상』,  
     명지대출판부  
 황원갑(1998), 「정몽주-죽음으로 절의 지킨 충효의 師表」 『역사인물기행』, (주)한국문원.  
 김중성(2000),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인물 한국사이야기』 5, 문예마당.  
 민병덕(2000), 「정몽주」 『우리나라를 빛낸 역사인물 20』, 글동산.  
 신연우 외(2001), 「정도전과 정몽주 - 격랑의 세월, 불꽃같은 삶 -」 『제왕들의 책사』  
 문경현(1980), 「려말 성리학파의 형성」 『한국의 철학』 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이희권(1982), 「정몽주 문묘종사에 관한 일고찰」 『인문논총』 10, 전북대  
 유경아(1996), 「정몽주의 정치활동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이형우(1990), 「정몽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고찰 -공양왕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1, 한국사학회



## 동양성리학의 시조 정몽주

2003년 6월 10일 인쇄

2003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홍재구

발행처 ·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031)335-2033

제 작 · 도서출판 홍익기획 (02)2274-8110

♣ 이 자료집은 포은문화제 홍보용 책자로 제작 배포합니다

# 圃隱 鄭夢周

정몽주(1337-1392) 선생은 고려말의 문신, 학자로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이며,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본관은 영일이다. 일찌기 문과에 세 번이나 잇달아 장원하여 명성을 떨친 그는 성리학에 정통하여 「동방성리학의 시조」로 추대되었다. 그는 외교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교린정책으로 왜국과의 교섭이 불가피하였을 때 뛰어난 외교술과 시문으로 고려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왜인들의 칭송까지 받았다. 우왕 즉위시 명나라의 사신 채빈이 살해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이도 그였다. 그는 또한, 복식의 개혁과 사전혁파를 주청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였다. 교육에도 힘써 개성의 오부에는 학당을,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케 하였다. 불교의식에 따르던 관혼상제의 제도를 주자가례에 따라 실시토록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세력으로 이성계 일파와 맞서 고려왕조를 회생시키려다. 개성 선죽교에 희생되었다. 순절한지 9년 후에야 비로소 그의 충절과 학문이 인정되었다. 조선 태종 즉위년(1401)에 문충(文忠)이라는 시호와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의 작훈을 내렸다. 송양서원·충렬서원·임고서원을 비롯하여 13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